서울大學校 同窓會報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協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發行人 崔主鎬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朴正雄

發行所
서울大學校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1】月刊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4년 4월 1일 第193號

15代 總同窓會長에 金在淳 前국회의장 推戴

▼94定期總會 席上에서 就任辭를 하고 있는 新任 金在淳 會長=지난 3월26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94년도 同窓會 定總에는 5백여동문이 參席, 盛況을 이뤘다. 둥근 사진은 前任 崔主鎬 회장과 함께 있는 新任 金在淳 會長.

冠岳春秋

兎生狗生정신과 제3의 跳躍

서울大學校同窓會가 제3단계 跳躍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갖추었다.

지난 3월2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94년도 總同窓會 定期總會에서 金在淳 前 國會議長을 제15대 會長으로 뽑고 제3단계 도약을 다짐한 것이다. 서울大學校同窓會의 제1단계 도약은 지난 69년 서울大學校總同窓會란 이름으로 출발한 草創期라 한다면 제2단계 도약은 지난 87년 동창회관의 건립을 계기로 한 서울大學校同窓會의 활성기를 말할 수 있다.

이 2단계 도약기는 崔主鎬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난 10년간을 말한다. 이 10년동안 서울大學校同窓會는 그야말로 도약이 아니라 飛躍일 정도의 발전을 이룩했다.

同窓會館 건립이라는 조그만 꿈에서부터 서울大 同窓 大統領의 탄생이라는 큰 꿈이 이룩된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2단계 도약에서 멈출 수 없다. 제3단계 도약, 아니 비약을 해야 한는 것이다.

우리 동창회가 이제 국제화, 세계화시대의 無限競爭을 이기기 위해서이다.

나라안에서의 1등, 國內에서의 정상만으로는 안된다. 世界에서의 1등, 國際的인 頂上이 돼야하는 것이다.

그 길은 첫째, 우리의 서울大 同窓 또는 서울大에서 첫 노벨상 수상자가 빨리 나오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母校인 서울大學校가 世界一流大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 일류대학의 교수와 학생비율이 1대 10정도인데 한국에서 제일 가는 서울大學校가 1대 24정도나 된다. 그래서 서울大學校가 세계 5백위 안팎이란는 것 아닌가.

현재 1천억을 좀넘는 서울大 한해 豫算으로는 세계 일류대학을 바라 볼 수 없다. 적어도 그 두배는 돼야 한다. 그 방법은 정부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우리 동창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또 그것이 당장 만족스럽게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만큼 우리 동창들 스스로가 발전기금 모금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寄與入學制 같은 것을 잠정적으로라도 과감하게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10억원씩 1백명이면 1천억원이 아닌가. 그것으로 서울大 학생 전체의 水準이 올라가고 세계 일류대학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기여 입학자의 학력수준이 좀 모자라는 것이 걱정이라면 4년 아니라 10년만에 졸업하게 하면 될 것 아닌가.

넷째, 우리 서울大 동창들의 團結과 和合이다. 서울大 동창들은 한사람 한사람은 모두 우수하고 單科大學別로는 단결력이 좀 있지만 全體的인 단결력과 화합력이 不足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제3도약기를 맞아 그것을 이룩해야 한는 것이다. 그것이 곧 世界의 無限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先導하는 지름길이다.

서울大學校總同窓會의 제3도약기를 맞아 새 동창회 陣容을 갖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때 兎死狗烹이란 말을 해서 더 유명해진 사람이 새 회장이 됐다.

새 회장을 맞은 서울大學校總同窓會는 이제 兎死狗烹의 정신이 아니라 兎生狗生의 정신으로 발전해 나가야할 것이다.

토끼도 죽고 개도 죽는 것이 아니라 토끼도 살고 개도 사는 共生相生 精神을 말한다.

兎生狗生 정신—共生相生 정신이야 말로 서울大學校總同窓會의 제3도약을 보장하고 母校를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전시키는 原動力이 될 것이다.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93호

'94年度 定期總會 盛了

93年度 決算승인 當期純益 2억9천만원

會則一部改定、滿場一致로 會長추대

總同窓會는 지난 3월 26일 하오 2時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94년도 定期總會를 개최, 第15代 總同窓會長으로 金在淳(52년 商大卒)동문을 推戴하고 會則一部 改定과 監事 2人을 選任했다。

▲지난 3월26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總同窓會 定總모습.

이날 總會에는 崔主鎬會長을 비롯 尹天柱, 權彛赫, 李賢宰 前任總長과 金鍾云 母校總長등 5백여 동문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으며 同窓會 93年度決算도 承認하는등 主要案件을 처리했다。

이날 午後1時에는 常任理事會가 힐튼호텔 「한라산」룸에서 개최되어 總會準備委員들로 하여금 銓衡委員 선임건에 대한 報告와 협의가 있었으며 會長추대를 위한 臨時議長을 선임하자는 案이 채택, 同門중 最年長者를 臨時議長으로 하여 新任會長을 推戴키로 결의하고 會則의 一部改定도 合意했다。

이에 따라 이날 定總에서는 臨時議長으로 前商科大學同窓會長을 역임한 바 있는 李珌奭동문(35년 商大卒·國際火災海上保險會長)을 選任하고 銓衡委員으로 金鍾云 母校總長, 鄭宗澤常任副會長, 李祥羲副會長(66년 藥大卒), 李仁子 家政大同窓會長, 李達雨 工大同窓會長, 沈鍾燮 農大同窓會長, 崔永喆 文理大同窓會長, 趙鏞樂 師大同窓會長을 선정, 新任會長 推戴를 一任키로 했다。

이날 오후 2時에 열린 定總에서는 會順에 따라 崔主鎬會長의 開會辭와 母校 金鍾云總長의 祝辭가 있었는데 金總長은 祝辭를 통해 母校현황과 發展방향을 소개했으며 新入會員 환영사에 나선 李賢宰 前總長은 社會에 첫 진출하는 新入회원들에게 『서울大人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寄與度가 크다는데 自慢하지 말고 부단한 自己啓發을 통해 선배들보다 한발 앞서는 後輩가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에 이어 新入회원 대표 金泰昊동문(經營大卒)은 答辭에서 『綺羅星같은 선배들의 품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선배들의 훌륭한 업적에 累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93년도 同窓會 決算承認案件은 曺 奭사무처장의 報告에 따라 異議없이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는데 93년도의 동창회 總收入은 6억9천2백40만원이며 支出은 4억38만원으로 2억7백84만원을 冠岳會 基金으로 轉出함에 따라 실질적인 當期純益은 2억9천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新任會長선임에 들어갔는데 李珌奭 臨時議長의 제청에 따라 銓衡委員을 選任, 會長推戴를 委任한다는 總會意思에 따라 銓衡委員들은 숙의를 거듭한 끝에 前國會議長을 지낸 金在淳동문을 選任, 推戴키로 決定하고 總會에서 滿場一致로 金在淳동문을 新任會長으로 推戴했다。

新任人事에서 金在淳會長은 『先後輩동문들의 以心傳心으로 總同窓會長으로 選任해주는데에 깊이 感謝드리며 同窓會長으로서 가장 큰 所任은 母校의 발전에 獻身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제한 후 이어 사회 각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20餘萬 同門이 『母校의 발전이 곧 祖國의 발전이라는 信念을 가지고 先進國의 有數한 大學 못지않은 大學으로 母校가 자리잡기를 열망할 때 동창회의 활성화 및 동문 개개인의 발전도 동시에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문들의 기대에 報答할수 있도록 最善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新任人事全文 同面左側〉

이날 定總에서는 會則一部 改定과 監事선임도 있었다。

〈新任會長略歷〉

▲國會財經委員長 ▲샘터社 理事長 兼 發行人 ▲同窓會 副會長 ▲國會議員 ▲國會議長 ▲7選 國會議員 ▲콜롬비아 上·下十字大勳章·泰國 最高白象大勳章·無窮花 大勳章。

"母校의 發展이 곧 祖國의 發展…最善을 다할 터"

— 金在淳 新任會長 就任辭

며칠 前, 崔主鎬 會長으로부터 總同窓會 會長 자리를 맡아보라는 권유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생각-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敬愛하는 同門의 先輩 同僚 여러분께서는 많은 部分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失禮가 될지도 모르는 말씀이겠으나 於焉 저의 나이도 70을 헤아리게 되다 보니 以心傳心이란는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에 依하지 않고 서로서로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傳해지는 것」, 本來「以心傳心」이란는 낱말은 佛教 禪家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尊敬하는 여러분!

同窓 여러분께서 이 時點에서 이 사람을 同窓會長으로 選出해 주시는 以心傳心의 그 뜻을 저 나름대로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1年 前에 本人은 「兎死狗烹」이란 心情을 吐露하여 政界를 떠났습니다。

며칠 前에 나온 月刊朝鮮 4月號에 우리 同門인 韓雲史兄이 저의 這間의 日記를 紹介하는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만 거기서 韓雲史兄은 兎死狗烹이 아니라 兎死狗放이라, 사냥을 끝내고 나서 사냥개를 삶아 먹은 것이 아니라 사냥개를 풀어 놓아주었다, 烹한 것이 아니라 放했다고 익살스러운 글을 쓰셨습니다。

1年만에 풀려나서 사랑하는 同窓들의 품에 돌아왔다고 自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이런 것이 모두가 同窓으로서의 情誼, 友情, 사랑이 있어서 생긴 일이라 여겨집니다。衷心으로 여러 同門에게 感謝 올립니다。

모처럼의 總同窓會 會長職을 맡고 무엇을 할 것인가? 뭐니뭐니해도 母校의 發展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現在 母校에 몸을 담고 계신 總長을 비롯한 教授, 教職員들, 在學中인 後輩들의 한결같은 所望이라고 여겨집니다만 母校를 거쳐간 20餘萬의 同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母校의 發展은 곧 祖國의 發展이라는 信念을 가지고 先進諸國의 어느 大學보다도 이에 못지않은 充實하면서도 權威가 있는 大學으로서 자리잡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時間에 우리나라의 大統領인 金泳三 同門이 國賓 資格으로 日本과 中國을 訪問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라 國民들의 團結力, 均質性 그리고 좀처럼 다른 나라로서 흉내 내기 어려운 國家目標를 向하여 合心團結하여 邁進하는 社會 氣風 같은 것을 보고 오리라고 믿어집니다。

母校의 發展은 곧 祖國의 發展이며 祖國의 發展을 위해서는 우리 同門들의 合心團結, 그리고 旺盛한 成就意慾이 切實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직도 淺學非材한 사람으로서 얼마만한 實績을 쌓아갈 수 있을런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先後輩 同門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鞭撻이 뒷받침된다면 제가 맡은 任期 동안 여러분의 期待에 조금이라도 報答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人事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醫療人像을 세우자'

姜회장, 醫大定總서 강조

▲지난 3월16일 개최된 醫大定總

93年度 決算·事業報告 의결
水原支部등 4개支部에 표창도

醫大同窓會(회장 姜信浩)는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 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權彝赫 前환경처장관을 비롯 1백여명의 同門이 참석한 이번 定總에서 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로 추진사업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각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金勝煜학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은 회원들이 세계유명학술단체의 명예회원으로 推戴되거나 학술상을 受賞하는등 많은 결실을 거두었으나 발전기금조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時代가 요구하는 大學속의 大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韓萬青병원장은 『선배가 닦아놓은 모교병원의 位相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尹東浩 모교교수외 11명의 常任陣과 수원支部등 4개지부, 10회 同期會에 대한 표창이 있었고 定期친목행사, 94년도 카렌더 제작, 소식지발간, 모교지원사업등 9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있었다.

94年度 事業計劃 확정

家政大 理事會열어 任員陣 개편

家政大學同窓會(회장 李仁子)는 지난 2월22일 이사회를 개최, 94년도 事業計劃을 확정짓는 한편 新任 임원진을 개편했다.

회장단은 부회장에 都南姬동문(62년卒·도나미代表)을 비롯, 校外總務 吳珖淑(64년卒), 校內總務 金敏子(71년卒·모교교수), 會計理事 趙誠嬌(73년卒·放通大교수)동문을 각각 선임하고 신임理事陣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理事(괄호안은 졸업년도와 학과)=李貴庸(57) 權慶珠(58) 高晶玉(59) 韓英淑(60) 慶順浩(61) 趙貞鎭(62) 鄭翼連(63) 陳英玉(64) 全富子(65) 公京玉(66) 白英子(68) 許顯南(69) 朴昭英(70) 柳英淑(71) 金潤淑(72) 洪亨沃(73·家政管理學科) 朴順珠(74〃) 韓 媛(75〃) 成賢慶(76〃) 李賢淑(77〃) 徐英淑(73·食品營養學科) 林順畢(74〃) 李賢淑(75〃) 權貞好(76〃) 沈嬿順(77〃) 趙誠嬌(73·衣類學科) 印銀淑(74〃) 柳玉姬(75〃) 桂忠淳(76〃) 李美植(77〃)

KBS 美洲總局長으로

李清洙 編輯委員 榮轉

本報 編輯委員이며 KBS 報道本部長待遇겸 解說委員長인 李清洙동문(63년 文理大卒)이 오는 5월 1일부로 KBS 美洲總局長겸 워싱턴特派員으로 榮轉하게 된다.

李동문은 本報 編輯委員으로 本報의 「冠岳春秋」「時論」등의 欄을 통해 정연한 論調와 명쾌한 直筆로 冠岳春秋欄을 빛내왔다.

특히 李동문은 텔레비전 時事討論 및 對談등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토론자들이 論外로 벗어나지 않도록 진행하며 중요 뉴스를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 예측가능토록 한 「명해설자」로서 인정받고 있다.

行大院, 新入生 歡迎會열어

激勵金전달, 團合도 誇示

行政大學院(회장 姜敏求)은 지난달 9일 오후 6시 모교 교수회관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金光雄행정대학원장과 교수, 李炯燻원우회장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으며 姜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모교에 입학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많은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姜회장의 격려금(50만원)전달식이 있은후 선후배 1백여명은 여흥시간을 함께 하며 앞으로의 결속을 다짐했다.

經大院 幹事會議
會費引上키로 결의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燦河)는 지난 3월 24일 同會 사무실에서 李회장을 비롯한 간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각 期別幹事가 중심이 되어 활동키로 하는 한편 組織정비및 會費引上을 위한 會則改定을 협의한 후 총회에서 승인받기로 결의했다.

商大 39回 同期會
新任幹事 3名선임

商大39회同期會(회장 辛赫承·한국경제연구원)는 지난달 9일 오후 7시30분 「풍전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매년 3월9일과 9월3일에 모임을 갖는 本 同期會는 이번 행사에 26명의 동문이 참석해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 임원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새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간사: 王允鍾(대외경제연구원) 申浩鉄(하나은행) 鄭智元(재무부 이재국)

獸醫大 임원회의
94년도 事業논의

獸醫科大學同窓會(회장 金範來)는 최근 문화예술회관 부페식당에서 회장단과 감사진을 부부동반으로 초청, 신년교례회를 겸한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홈커밍데이 행사, 모교교수 정년퇴임 기념행사, 정기총회, 회보발간등 94년도 사업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金회장의 재임 3년동안에 모금한 기금 4천여만원의 관리방법과 5천만원 목표달성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宋相現동문 뉴욕大 碩座教授로

「世界서 가장 뛰어난 法學者」에 選定돼

母校 法大 宋相現교수(63년 法大卒)는 미국 뉴욕법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法學者 25人중의 한사람에 선정됐으며 지난달 12일 뉴욕大로부터 Inge Rennert Distinguished Professor of Law라는 명정의 碩座교수로 추대됐다.

宋교수는 이후 일생동안 아무 조건없이 전세계적으로 한국법학의 진흥을 위한 연구와 강의 및 자문을 하게 된다.

뉴욕法大는 세계 超一流大學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법학교수 25인을 선정, 대학교수로 임명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선정방식은 세계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학자, 국제사법재판소장, 유엔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옥스포드大 Ronald Dworkin 교수등으로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심사기준은 본인의 학문적 업적을 심사하되 출신국가의 중요성과 국내법체계를 고려하기로 했으며 출신국가의 비중이 큰 경우라도 그 나라의 법학수준이 미흡하면 과감하게 보류키로 했다는 것.

개인적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심사위원회가 뉴욕大의 도움을 얻어 확보한 전세계 70여개국의 3천여명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장 먼저 선정된 학자가 宋교수였고 나머지 24명의 선발작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宋교수는 소감을 통해 『우선 한국인으로서 국제적으로 처음 받은 이 영예를 한국 법학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UR타결이후 급속한 世界化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학의 이론이나 실무도 국경을 넘어 법세계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달성하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93호

「러시아支部」創立總會개최

初代會長에 李祥太동문 選任

지난 3월15일 同窓會러시아支部가 모스크바 소재 「한국관」에서 創立總會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本會 鄭宗澤상임부회장과 모스크바 駐在 대사관, 商事, 研究所 직원등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 5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으며 同門들의 열띤 호응속에서 鄭부회장의 本會 활동소개와 해외지부 설립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本會 회칙에 준해 지부회칙을 채택한 후 실시된 임원선출에서는 會長에 李祥太(63년 商大卒·駐러시아대사관 公使)동문이 만장일치로 推戴됐으며 부회장에는 金正奭(64년 工大卒·생산기술연구원 모스크바사무소장), 金錦玉(71년 音大卒), 金豪雄(73년 工大卒·코오롱 모스크바支社長), 李長勳(80년 人文大卒·한국일보 특파원), 李哲(86년 法大卒·유학생)동문이 각각 연구소, 여성계, 商事, 언론, 유학생부문의 대표로 선임됐다.

또한 총무간사에는 梁仲模(82년 社會大卒·駐러시아대사관 書記官)동문이 선임되었고 金奭圭(62년 文理大卒·駐러시아大使), 鮮于榮一(63년 法大卒·KOTRA본부장)동문이 顧問으로 推戴됐으며 이날 선임된 會長團을 비롯한 任員陣들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母國과 母校에 대한 추억담을 나누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고 총회가 끝난 뒤 여흥시간에는 여러 동문들이 빼어난 노래솜씨를 발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金錦玉부회장은 가곡을 열창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참석동문들의 母國愛와 母校愛로 하여 분위기가 크게 고양되면서 親睦紐帶와 活性化를 다짐하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支部의 회원수는 69명으로 알려졌다.

▲金永基이사장이 同門子女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同門子女 9명에 奬學金

在美同窓會財團

受惠者폭 擴充 계획

在美서울大同窓會財團(이사장 金永基)은 지난 2월12일 LA다운타운 소재 웨스틴보나벤쳐호텔에서 同門자녀 9명에게 각각 7백달러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金이사장은 장학생에게 일일이 장학금을 전달하며 『앞으로 장학생 선발에 각 지부의 추천절차를 거쳐 지부 동문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의 장학생과 학부모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 학부모 성명) ▲노희권 일리노이數學·科學아카데미 12학년(盧光來 70년 農大卒) ▲성기원 써니고교 11학년(成周慶 72년 商大卒) ▲김은주 다이아몬드바고교 12학년(權明姬 71년 看護大卒) ▲곽상영 노쓰할리우드고교 12학년(郭鐵 68년 法大卒) ▲윤 기 써미트고교 12학년(尹汝民 64년 商大卒) ▲김유진 위네카고교(金錫九 70년 工大卒) ▲허지미 UCI-rvine 2학년(許武彦 63년 藥大卒) ▲조현일 로렌스중학교(趙馨來 70년 工大卒) ▲김선미 그라나다힐고교 12학년(金洛中 67년 文理大卒)

뉴욕支部 新年잔치 열어

13個 同窓會 합동으로

최근 同窓會 뉴욕支部(회장 李文輝)는 「할리데이 인크라운프라자」에서 2백50여명의 동문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맞이 큰잔치」를 열었다.

이날 宋鶴麟준비위원장(63년 法大卒)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는 李文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13개 單大회장단이 동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李회장은 『在美 동문중 특히 뉴욕지구 동문들이 서로 결속해 국제화시대에 韓人커뮤니티의 지적 발전에 초석이 되자』고 역설했다.

또 柳宗夏동문(59년 法大卒·유엔大使)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유엔가입 1백84개국중 15개국 안에 드는 핵심국가로 급부상해 국제관계및 경제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총명한 우리 2세들의 성장과 미국사회의 안착으로 韓人社會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임 14대 회장 李典九동문(64년 農大卒)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한편 池洋吉동문(71년 音大卒·光州藝術大교수)의 축가로 이어진 여흥순서로 참석동문들은 한껏 축제 분위기에 젖어든 하루였다.

南加洲支部 94년도 定總 가져

李丙俊동문 新任會長 被選돼

지난 2월 12일 南加州支部同窓會(회장 權赫昌)는 웨스틴보나벤쳐호텔의 산타바바라룸에서 2백80여명의 동문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및 신년파티를 개최했다.

이날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李丙俊동문(59년 商大卒)은 『전임 權赫昌회장 이하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제한 뒤 『각 單科大동창회의 활발한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을 선정,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심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또 이날엔 93년도 사업결과보고와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각 單科大 신임회장들의 소개도 있었는데 2부순서에서 가곡및 가야금 연주, 초청악단의 연주와 노래등으로 여흥시간을 가지며 동문부부들이 사교댄스로 흥응, 흥겨운 분위기가 계속된 모임이었다.

在野운동가 張琪杓동문 復學

同期生과 師弟사이 聽講話題

法大 66학번으로 38학점을 남겨둔채 4학년 재학시 70~80년대 군사독재정권과 맞서 학생운동의 선봉에서 투쟁했던 전 민중당 정책위원장 張琪杓동문이 이번 학기에 정식으로 복학, 강의를 받고 있어 話題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목) 오후 3시 4동 대강의실에서 미시경제학강의를 듣고 있는 晩學徒 張동문에겐 그 강의를 맡은 교수가 朴世逸교수(사법학)로 法大입학동기인 66학번 동기생이었다.

同期친구를 師弟관계로 강의실에서 만나는 현실은 軍事獨裁정권으로 질곡되었던 격동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場面이었다.

그는 70~80년대를 거의 노동·저항운동, 감옥생활을 오가며 활동했고 작년에야 비로소 석방된 어렵고 고통스런 생활을 해왔다. 이제 못다한 공부를 젊은 후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母校의 강의실에서 同期로부터 강의를 받으면서도 기쁨이 마음 가득하다.

『내가 復學한 것은 지식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폭넓은 공부를 해야되요』하면서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下校를 재촉하는 그의 뒷모습에서 50의 法大生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든 苦行길을 그에게 맡겨온 것은 아닌지 숨이 차다.

현재 그는 급변하는 시대에 비판경쟁이 아닌 실질적 대안경쟁의 정치를 생각하며 「大轉換의 國家發展戰略」이란 책을 집필하고 있다.

齒大 日本支部서

觀音佛 기증

최근 齒大同窓會 日本支部(회장 手島 東)는 한국에서 반출된 觀音佛을 모교에 기증했다.

지난해 8월 작고한 故 蜷本邦武(京城齒專 9회卒)동문이 소장하고 있던 이 觀音佛은 높이 87㎝의 크기로 赤松으로 제작돼 있다.

일본 福岡縣 한국영사관에서는 한국국립박물관에 기증할 것을 권유했으나 소장자가 모교기증을원해 이루어진 것으로 올해중 모교에서는 齒大내에 齒科博物館을 설치해 보관할 계획이다.

法大26回 同期會서

春季바둑大會 가져

法大26회同窓會(회장 金洪柱·서우상역상무)는 지난달 5일 춘계바둑대회를 개최했다.

바둑부 회장으로 있는 具相鎭(변호사)동문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崔圭成(동주무역상사대표)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또 매월 가족동반으로 열리는 등산대회(등산부회장: 洪正熙변호사)는 2월 도봉산 등반에 이어 3월20일 청계산에서 개최됐다.

한편 지난 정기총회에서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副會長: 李仁濟(국회의원) 俞重植(한화그룹이사) ▲總務: 文昌星(국제종합금융부장) ▲監事: 李三燮(금호그룹회장실이사)

富川支部 定總열어 任員改選

支部長에 姜豪錫동문 추대

副會長 4名도 바꿔 活性化 다짐

지난 3월24일 同窓會 富川支部는 富川市內 뉴프린스호텔에서 94년도 定期總會를 개최, 李弘來회장이 임기만료됨에 따라 姜豪錫동문(56년 商大卒·富一相互信用金庫사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오후7시부터 金洛律 初代會長(53년 醫大卒·세일병원이사장)을 비롯, 白承權 고문(57년 師大卒·富川南中교장)등 40여명의 동문이 참석, 朴敬浩총무이사(72년 工大卒·신우설유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신임회장의 選出에 들어가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의견이 좁혀진 姜豪錫동문을 만장일치로 第3代 富川支部 동창회장으로 추대했다.

▲富川支部 定總의 장면.

이날 개선된 副會長을 포함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 金洛律(53년 醫大卒·세일병원이사장) ▲고문: 白承權(57년 師大卒·富川南中교장) 石世助(54년 獸醫大卒·시온고교장) 李弘來(56년 藥大卒·삼보약국대표) ▲부회장: 權五成(76년 醫大卒·성서의원院長) 朴昭範(63년 文理大卒·삼협전자대표) 張俊鎬(56년 師大卒·역곡중교장) 金興植(63년 藥大卒·부천시의회부의장) ▲감사: 盧相述(57년 師大卒·부천공고교장) 金基昌(71년 齒大卒·김치과의원장) ▲총무이사: 鄭行元(63년 文理大卒·삼협전자전무) ▲재무이사: 朴敬浩(72년 工大卒·신우설유대표) ▲섭외이사: 崔鍾浩(74년 齒大卒·최치과원장) ▲사업이사: 姜永錫(76년 醫大卒·강의원장) ▲부총무이사: 金一泰(75년 藥大卒·대정제약대표)

濟州支部 母校입학생 55명초청

祝賀宴열어 벽시계등 기념품주며 격려

同窓會 濟州支部(회장 金炳贊)는 최근 제주도출신 母校합격생 55명을 초청, 94년本道出身합격자축하회를 성대히 거행했다.

이날 金회장은 환영인사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교에 합격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서울大학생으로서 긍지와 함께 인격도야와 학업에 충실해 나라와 겨레의 미래를 책임지는 동량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또 同支部 고문인 金瀅玉동문(50년 文理大卒·前제주대총장)은 『모교에 합격하는 것이 목적일 수 없고 충실한 대학생활을 통해 훌륭한 서울大人으로 성장해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신입생 전원에겐 합격기념품으로 벽시계가 주어졌고 玄林鍾부회장(60년 商大卒)이 모교의 연혁과 현황을 비롯, 同窓會의 활동내용을 소개했는데 이날 환영연에선 선후배동문과 신입생이 한데 어울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선배동문들의 지난 學窓생활을 회고하는 대화를 가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鎭海 신입생환영회

母校合格뱃지 전달

同窓會 鎭海支部(회장 朱吉燉)는 최근 海軍會館에서 금년도 母校합격생 전원과 학부모를 초청, 신입생환영회를 갖는 한편 선후배 동문이 정감어린 대화를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또 지난 2월15일에는 朱회장을 비롯, 朴春永부회장(60년 齒大卒) 禹鎭午총무이사(78년 齒大卒) 具貴善동문(43년 京城師範卒)등이 鎭海高校및 鎭海女高 兩校 졸업식에 참석해 정수진(計算統計學科)、양현주(藥學科)양과 김지훈(計算統計學科)、이상한(海洋地質學科)君 등 母校入學生에게 각각 合格뱃지를 수여했다.

科·期別同窓會 활성화에 拍車

定總·任員改編등 잇달아

「建設同門會」결성 資源工科 출신들로

최근 工大資源工學科출신동문중 건설업에 종사하는동문들의 모임이 결성돼 技能別 모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져 주목되고 있다.

資源工學科同窓會(회장 咸景浩)에 따르면 건설업계에서 활약중인 동문끼리 친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해 자리를 함께 마련하무 「資源工學科建設業同門會(가칭)」를 결성, 회장에 李隆植동문(58년卒·범양엔지니어링명예회장)、총무에 金昊泳동문(80년卒·鮮京建設차장)을 선임하고 同會 조직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建築科 定總서 鄭日榮신임회장

建築學科同窓會(회장 辛鉉植)는 지난 2월19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회장에 鄭日榮동문(55년卒·모교敎授)과 총무이사에 金光禹동문(75년卒·모교敎授)을 각각 선출하고 93년도 決算 및 94년도 豫算을 의결했다.

신임 鄭회장은 전임회장단의 노고를 치하한 뒤 『선후배가 함께 어우러져 모교 및 동창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다』고 선임된 소감을 피력했다.

法大19回 同期會서 卒業30周준비 협의

法大19회同期會(회장 金永三·변호사)는 지난달 11일 「망강홍」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준비와 졸업30주년 행사에 관해 집중협의를 했으며, 총회준비를 위한 임원회의를 4월초에 다시 갖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를수 있도록 임원들이 주축이 돼 프로그램을 준비키로 결의했다.

齒大19回 同窓會 總務·監事등 選任

齒大19회同窓會(회장 李時雨)는 최근 임원개선을 위한 정기총회를 종로구 와룡동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24명의 동문들은 내년 졸업30주년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으며 개선된 임원으로 총무에 金基爀(김기현치과의원)동문, 감사에 金基鎬(김기호치과)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李淸正、造正鉉동문에게 각 1천불의 위로금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齒大21回 同期會 總會열어 任員바꿔

齒大21회同期會(회장 金炳基)는 최근 신사동 소재 「굴다리집」에서 임원개선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5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구체안을 협의했으며 기념행사를 위한 준비금을 적립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鄭聖眞(모교교수) ▲총무: 申淳一(신치과)

行大院 3·1會서 榮轉同門 축하연

行大院3회1부同期會(회장 朴松圭)는 최근 「삼원가든」에서 姜敏求 行大院同窓會長이 참석한 가운데 同期會를 개최했다.

同會 會長을 맡고 있는 朴松圭동문이 법제처 법제조정실장에서 법제처 차장으로, 申基鍑동문이 외무부 제1차관보에서 캐나다대사로 영전하게돼 취임축하를 겸해 열린 이번 모임은 동기생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 친목도모의 뜻깊은 행사였다.

行大院 27期同門會 盲人소망원 慰問

行大院27期同期會(회장 金信鎬·前대한석탄공사사장)는 최근 동기모임을 가진후 동기들과 함께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노곡리 맹인소망원을 방문하고 쌀 5가마, 쌀국수, 쌀떡 70상자와 의류등을 전달했다.

行大院 9·1同期會 卒業25周 기념행사

行大院9-1부同期會(회장 金松子)는 지난 2월17일 오후 6시30분 「해군회관」에서 졸업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李宗范(고려대교수) 文憲相(재무부기획관리실장)동문등 18명이 참석해 학창시절에 대한 추억담을 나누면서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1년에 2회이상 모임을 갖기로 결의했다.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93호

94定期總會詳報

熱意에 찬 總會분위기, 海外동문도 參席

同窓會명칭 「總同窓會」로 바꿔

會長 선임엔 참석회원 全員이 推戴박수

2백여景品추첨配分, 흥겨운 한마당 이뤄

○…올해의 定期總會는 任員改選을 비롯해 會則 一部 改定과 監事選任、아울러 93년도 決算승인、新入會員 迎入、優秀支部 표창행사등 어느 해보다도 분주한 總會였다.

그도 그럴 것이 前任 崔主鎬會長이 5회 連任、10년간의 會長職에서 退任함에 따른 新任會長 推戴가 큰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任員選任에 關心이 있었던 탓인지 總會에 참석한 同門數도 例年에 比해 많은 5백여명이 會場을 꽉 메꾸었다. 특히 印象的이었던 것은 老先輩동문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을 뿐더러 아흔살에 가까운 全禮鎔(30년 高商卒)동문이 秘書에게 몸을 의지해가면서 어려운 行步로 참가한 것을 비롯、李兌榮(49년 法大卒・韓國家庭法律相談所長)동문에 이르기까지 著名人事들이 많이 참석했다.

○…附議案件으로 上程된 會則 一部改定은 前任會長의 同窓會 活性化와 基盤構築에 獻身한 功勞를 認定하여 名譽會長으로 모시기 爲한 禮遇에 따른 문제여서인지 이날 열렸던 常任理事會에서도 參席任員 전원의 찬성으로 별 어려움없이 案件上程을 決議해 總會에서 採擇되었던 것。

또한 그동안 各界同門들로부터 建議가 殺到했던 同窓會 名稱에 대한 會則 第1條의 「本會는 서울大學校同窓會라 한다」를 「總同窓會라 한다」로 「總」字를 同窓會 앞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서울大學校는 各單科大學同窓意識이 비교적 強하게 작용하고 있는 탓인지 本會와 各單科大學同窓會를 混同하고 있었기에 任員들의 요청에 따라 改定하게 된 셈이다。

○…올해 定總에서 異彩로왔던 것은 在美 서울大學校同窓會 財團 金永基理事長과 뉴욕支部 前會長 李典九동문、샌프란시스코支部 崔慶善支部長이 定總에 참석하기 爲해 美國에서 일부러 귀국했던 일이다。在美同門들의 母校愛와 同窓會에 대한 獻身的인 노력이 크게 부각되어 참석동문들의 격려와 환영의 拍手를 받았다。이들을 爲해 同窓會에서는 功勞牌와 副賞까지 주어 感謝의 표시로 격려했다。

○…前國務總理였으며 母校總長이었던 李賢宰동문의 新入회원 환영사에서 서울大출신들의 엘리트意識을 칭찬하면서도 앞으로는 社會各界에서 頭角을 나타내고 各階層의 우수집단으로 지금과 같이 榮譽를 차지하기란 大端히 어려울 것이란 분발을 촉구한는 말은 加一層의 努力을 당부한 前任總長다운 언급이어서 참석동문들의 호응을 받았다。서울大출신들은 언제 어디서나 서울大人답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加一層의 노력과 분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宿命(?)같은 것이 따라다니는 것은 아닐까?

○…한편 本會議를 마친 참석동문들은 2부순서를 위해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사무처측이 마련한 뷔페식사와 음료 및 칵테일을 들면서 삼삼오오로 짝지어 총회참석 소감과 환담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박경원동문(90년 家政大卒・힐튼호텔판촉지배인)의 능숙한 사회로 진행된 경품추첨에서는 경품권 번호가 불리울 때마다 환호성과 탄성이 장내에 가득 차기도。

이날 추첨된 경품은 각계 동문들이 협찬해준 東京왕복항공권、제주도왕복항공권을 비롯 냉장고、비디오、전자키보드、카메라、자전거등(경품협찬목록 참고)으로 추첨을 통해 참석동문들에게 골고루 나눠졌는데 2백10여점의 경품이 일일이 전달돼 잔치분위기 속에 총회를 마쳤다。

▲定總을 끝내고 기념촬영을 가졌는데 左로부터 金永基 在美同窓會이사장, 尹天柱 前총장, 李珌奭임시의장, 崔主鎬 前任회장, 金在淳 新任회장, 金鍾云 모교총장, 權彝赫·李賢宰前총장등이 함께 했다.

▲2부 순서에서 칵테일 파티를 겸한 景品추첨이 있었다.

景品 協贊해 주신분

〈接受順〉

崔主鎬	宇成그룹 會長	유성리베라호텔숙식권	5조
金相廈	三養社 會長	식용유선물세트	30세트
具平會	럭키金星商事 會長	소형냉장고	3대
崔鍾賢	鮮京그룹 會長	워커힐호텔숙식권	5조
朴晟容	금호그룹 會長	제주왕복항공권	3조
金善弘	起亞그룹 會長	삼천리자전거	3대
李奭熙	大宇통신 會長	대우무선전화기	5대
趙南煜	三扶土建 會長	콩코드호텔숙식권	5조
李洙彬	三星증권 會長	삼성비디오	1세트
朴容晟	斗山그룹 副會長	OB씨그램	240병
		썸씽 스페셜	24병
玄在賢	東洋그룹 會長	동양카라멜	1,000봉
鄭夢準	現代중공업 顧問	현대무선전화기	5대
姜信浩	東亞製藥 會長	화장품세트	10세트
張翼龍	西 光 會長	라꼬스테T셔츠	10벌
姜晋佑	롯데쇼핑 社長	고급T셔츠	10벌
金基炳	롯데觀光 會長	해외관광권	3조
金基仁	담배人蔘公社 社長	홍삼선물세트	10세트
金性洙	오양수산 會長	오양선물세트	10세트
吳世熙	金星通信 社長	금성무선전화기	3대
宋世昌	教保文庫 會長	아동용전집세트	2세트
申熙澈	금강製靴 副會長	신사화	5족
趙太濬	라미化粧品 社長	라미화장품	10세트
元容勳	大林通商 社長	리빙스타압력솥	3대
柳遠榮	韓國電子 會長	전자키보드	1대
李大榮	비제바노 專務	신사화	5족
李大遠	三星航空 社長	삼성카메라	3대
李世馥	(株)佳養 專務	코티화장품	10세트
孫京植	第一製糖 副會長	제일햄	10세트
李憲祖	金星社 副會長	금성소형TV	2대
李泓熙	東西食品 會長	동서꿀선물세트	10세트
俞玄植	第一毛織 社長	갤럭시신사복	2벌
卞圭七	럭키金星 社長	신사복	2벌
崔奭喆	코오롱商事 社長	코오롱T셔츠	10벌
韓勝熙	삼나스포츠 社長	나이키잠바	10벌
黃英奎	太平洋化學 社長	태평양화장품	10세트
許 鎔	삼일제약	기념수건	28세트
全載燁	힐튼호텔 社長	경주힐튼호텔숙식권	1조

晉洲支部定總

同好會 결성도

同窓會晉州支部(회장 鄭敬泰)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결속을 위해 登山、테니스、바둑、壽石、골프등 同好會를 조직、活性化시키기 위해 오는 4월9일 바둑同好會、4월16일 登山同好會、4월26일 테니스同好會등의 행사를 개최키로 결정、회원확보및 조직에 착수했다。

耳順테니스會

冠岳에서 개최

모교출신으로 60세이상의 테니스同好人모임인 耳順同門테니스會(회장 李禮植・49년 藥大卒)는 지난 3월27일 冠岳캠퍼스 교수코트에서 제13회 대회를 개최했다。

화창한 봄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의 경기 결과 각조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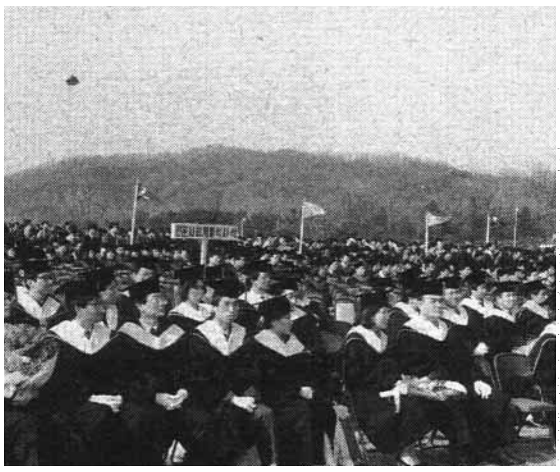
▲古稀組: 金應振(39년 京城醫專卒) 李泰浩(42년 京城高商卒) ▲耳順A組: 金教成(55년 工大卒) 李海元(53년 法大卒) ▲耳順B組: 尹斗石(56년 藥大卒) 姜鍾基(60년 商大卒)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93호

首席입학·졸업생들의 未來를 향한 靑寫眞

卒業生 就業 前年對比 減少추세

大學院진학·專門職 선호가 문제



▲지난 2월26일 제48회 卒業式장면.

올봄 모교를 졸업한 5천8백95명중 首席卒業한 16명의 진로는 전체수석의 영예를 차지한 尹慧貞동문(대학원林産工學科)을 비롯한 11명이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유학 준비중이고 安甫容동문(제35회 司試합격, 사법연수원 수학중)등 5명은 각기 專門職에 취업, 자신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매진을 거듭하고 있다.(표1참조)

또 올해 졸업생들의 進路 現況을 살펴보면 취업률이 前年對比 0·5%내외 감소된 것으로 잠정추계됐는데, 국내외 경기위축으로 「취업문」이 좁아진데다 고급화된 인력수요를 요구하는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대학원에 진학하는 풍토에 기인된다고 모교 취업정보실의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이는 (표3)에서 본바와 같이 전체 취업자수에서 대학원진학과 군입대 수치를 뺀 純就業率이 학부보다 석사·박사과정후 급격히 높아지는 것에서 나타나는데, 학부 졸업후 취직을 통한 사회진출보다는 국내외 진학율이 더 높은데서도 그 현상을 읽을 수 있고 모교가 「대학원중심大學」으로 나아가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또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 석·박사 과정을 마친 동문들이 敎授要員을 비롯한 교육기관에 취업되는 비율이 학부(1·9%)보다 석사(6·6%)·박사(33·6%)과정후 높아지고 연구기관 및 의약분야등 전문직종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갈수록 高學歷化를 지향하는 社會人力需給體系가 계속될수록 대학원진학비율은 증가되리라는 전망이다.

한편 금년 母校入試의 특징은 14년만에 本考査가 부활돼 세칭 명문고들에게 一喜一悲를 가져다 준 점이다.

올해 50명이상의 합격자를 낸 高校가 8개교인데 이중 外國語高, 科學高, 藝術高등 특수목적高가 5곳이나 될 정도로 特殊目的高로의 집중화현상이 부각된 반면 소위 「교육特區」라 불리던 서울 강남8학군 高校들은 대부분 저조한 기록을 나타냈다.

또한 전체 首席合格의 崔志煥군(工大전기전자제어공학군 서울과학고卒)을 비롯, 인문계수석을 차지한 崔知錫군(法大법학과 잠실고卒)등 16명의 수석합격자들은(표2참조) 역시 異口同聲으로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예·복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점이 「수험방법의 王道」라고 입을 모았다.

〈표1〉94년도 각 대학 首席卒業者

대학	성명	학과	진로
人文大	姜玧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진학
社會大	李垠周	신문학과	〃
自然大	金榮權	화학과	〃
家政大	金貞希	의류학과	〃
看護大	朴勝美	간호학과	삼성의료원 간호사
經營大	安聖薰	경영학과	BAIN인터컨설팅컨설턴트
工科大	李相範	화학공학과	대학원 진학
農生大	尹慧貞	임산공학과	〃
美術大	李姃恩	동양화과	유학준비중
法科大	安甫容	사법학과	사법연수원 수학중
師範大	白仁秀	교육학과	유학준비중
獸醫大	宋吉永	수의학과	대학원 진학
藥學大	姜錫兆	약학과	〃
音樂大	梁恩珠	작곡과	유학준비중
醫科大	金美昤	의학과	모교병원 인턴
齒科大	丁民祜	치의학과	모교 치과병원

〈표2〉94년도 각 대학 수석입학자

대학	성명	학과	출신고
人文大	조연이	영어영문학과	서문여고
社會大	안상훈	경제학과	휘문고
自然大	이은수	수학과	서울과학고
家政大	이영아	소비자아동학과	혜화여고
看護大	강지영	간호학과	기전여고
經營大	류혁재	경영학과	광덕고
工科大	최지환	전기전자제어공학군	서울과학고
農生大	조윤정	식품공학과	충북과학고
美術大	오진이	동양화과	서울예고
法科大	최지석	법학과	잠실고
師範大	사용주	영어교육학과	경기고
獸醫大	김현욱	수의학과	세화고
藥學大	조현민	약학과	영등포고
音樂大	김재석	성악과	창원고
醫科大	황성조	의예과	영등포고
齒科大	원이경	치의예과	안양고

〈표3〉 1994년도 졸업생進路現況

구분 \ 졸업구분			학부	석사	박사
취업현황(%)	교육기관		1.9	6.6	33.5
	공무원		1.2	5.2	4.1
	언론기관		0.7	0.5	0.2
	기업체		10.7	14.5	8.6
	금융기관		2.4	2.7	0.2
	예능분야		1.6	0.7	—
	의약분야		8.5	6.4	15.0
	연구기관		0.5	6.9	12.0
	자영업및기타		1.2	4.4	13.0
	소계		35.7	47.7	86.6
	진학	국내	37.6	27.7	0.2
		국외	1.8	3.2	1.6
		소계	39.4	30.8	1.8
	군입대		6.6	6.5	0.7
합계			2,944명	1,602명	362명
미취업자			663명	280명	44명
졸업생수			3,607명	1,882명	406명
취업률			81.6	85.1	89.0
순취업률			35.7	47.7	86.6

※ 1. 上記調査는 1994년 3월 21일 現在 暫定推計
2. 純就業率은 進學 및 軍入隊를 뺀 수치

「冠岳」의 품을 떠나면서 "首席에 自慢치 않겠다"

金貞希 동문
大學院 衣類學科

올해 家政大學 수석졸업생인 金貞希(의류학과)동문은 대학원에 진학해서인지 아직 사회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선배동문들의 뜻을 받들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신입회원이 된 소감을 밝힌다.

92년 같은 과에 입학, 군입대한 남동생 김종호군과 함께 공부하는 등 추억이 많은 대학생활을 마감하게 돼 매우 섭섭하다는 金동문은 앞으로 계속 공부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후배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게 가장 큰 바람이다.

安聖薰 동문
BAIN 인터컨설팅社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이 지금만큼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經營大學 수석졸업생으로서 현재 BAIN인터컨설팅 경영전략전문 자문회사에 몸담고 있는 安聖薰(경영학과)동문은 여러 산업을 폭넓게 접해볼 수 있다는 이점과 경영자의 관점에서 기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토로했다.

『기회가 주어지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3~4년후에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安동문은 경영학도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수립과 경영혁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丁民祜 동문
모교 齒科병원

『재학시절에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새로운 것을 앎」이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齒科大學을 수석으로 졸업한 丁民祜(치의학과)동문은 좀더 뜻깊게 보내지 못한 학창시절을 아쉬워 하면서도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모교 병원의 치과진료부 교정과 인턴으로 있는 丁동문은 『앞으로 성실하고 정직하며 환자를 이해하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丁동문은 모교가 우리나라 제일의 학문의 요람, 인재의 산실이나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동창회의 의무중 하나』라고 말하고 『서울大人으로서 사회에, 동창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문제를 푸는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93호

同門을 찾아서

家政大 李仁子會長

조직 활성화、會員倍加에 注力

최근 木蓮會(家政大同窓會)는 새봄을 맞아 동창회 활성화와 조직정비에 한창이다.

이는 신임 李仁子회장(59년卒·建國大 敎授)이 취임하고서부터 선후배간은 물론이고 期別 모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다수 동문들이 가정에서 은둔(?), 동창회의 활성화에 미흡한 점이 많지만 副會長 2명중 1명을 은둔한 「有力同門」에게 할애하여 조직활성화와 회원배가의 일환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李회장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지난 73년 이전 졸업생이 師大 家政教育科 출신이고 그 이후부터 현家政大 출신 同門들로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내재해 있지만 同門들이 母校愛를 적극 발휘토록 하는 사업계획을 추진, 모든 同門이 단합된 모습을 과시할 수 있도록 同窓會를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李회장은 밝혔다.

『모임을 자주 가져 일체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동문에게 부담을 주는 모임을 가져서도 안되겠습니다』라고 평소 동창회 운영에 대한 지론을 피력한 李회장은 특히 금년에는 주위의 「어려운 同門 돕기」부터 시작해 가을에는 「홈커밍行事」도 계획중이라고.

衣類·服飾學會등 활발한 사회활동

李회장은 개인적으로는 학교강의뿐 아니라 韓國衣類學會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韓國服飾學會 회장을 맡는등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여념이 없는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슬하에 아들(모교 醫大卒) 딸(音大卒) 사위(經營大卒)를 둔 「서울大家族」이기도.

藥學大 黃善灝會長

선·후배 단합 풍토 조성키로

『뜻밖에 重任을 맡고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기왕 선임을 해주셨으니 同窓會의 본래 목적인 동문상호간의 親睦과 母校發展에 기여할 수 있도록 藥大동문들의 힘을 結集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열린 藥大同窓會 定期總會서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추대된 黃善灝동문(60년 藥大卒·大韓藥師會 副會長)은 소감을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선·후배가 굳게 단합하는 풍토를 조성, 藥師의 새 길을 개척한다면 밑거름이 되겠다』는 다부진 의지를 보였다.

60년 모교 藥大를 졸업한 黃동문은 영진약품, 삼영화학(現 코오롱제약)등의 제약회사에 잠시 근무하다가 개업을 하고 大韓藥師會에 관여, 현재까지 30여년동안 오로지 우리나라 藥學界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회원 참여도 높이는데 진력할터'

黃동문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동문들의 대부분이 약사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참여률이 저조한 실정이기에 동창회 회장으로서 약사회에 대한 선·후배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사회봉사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동창회의 기여도가 미흡한 점을 통감하고 총동창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가족으로는 부인 朴恩淑여사와의 사이에 2男1女를 두고 있다.

使館首席敎育官)=지난달 海外근무를 마치고 서초구 良才高校 校長으로 歸任. (自宅)안양시 평촌신도시 꿈마을 금호타운 803-202 (전화)0343-84-0824. (學校)571-4458.

▲金炯培(55년 法大卒·前中小企業振興公團理事長·本會理事)=최근 東部그룹 제조부문회장겸 東部제강(株)、東部화학(株) 대표이사회장에 就任했다.

▲朴永泰(55년 法大卒·前韓一銀常務·本會理事)=최근 韓國金融安全(株) 社長에 就任. (전화 562-4021)

(60년 商大卒·慶南銀行長·本會理事)=최근 경남은행 제32기 정기주총에서 경남은행장에 留任됐다.

▲尹承重(60년 工大卒·原都市綜合建築代表)=최근 열린 한국건축가협회 제36회 정총에서 신임회장에 選任.

▲宋漢虎(60년 文理大卒·前統一院事務總長·本會理事)=지난달 4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족통일중앙협의회 94년도 정총에서 제8대 의장에 被選.

▲尹世榮(61년 法大卒·前서울放送社長·本會理事)=최근 열린 서울방송 이사회에서

협력기구(APEC)내의 저명인사협의회(EPG)한국대표로 選任됐다.

▲金鍾振(64년 工大卒·前浦鐵副社長)=지난달 10일 열린 포항제철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昇進.

▲洪秉義(64년 法大卒)=최근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6 신봉빌딩 1002호. 전화 501-8884.

▲司空壹(64년 商大卒·世界經濟研究院理事長)=지난달 7일 교통개발연구원 이사장에 就任.

▲愼侑根(64년 商大卒·母校敎授·本會理事)=최근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정총에서 부회장에 選任.

▲金英男(65년 工大卒·正友石炭化學(株)社長·本會理

定。

▲尹赫基(67년 文理大卒·前韓國放送開發院長)=지난달 9일 서울방송 이사회에서 신임대표이사 사장에 選任.

▲權奇正(68년 商大卒·前東洋시멘트副社長)=최근 대한증권 신임사장에 就任.

▲全義進(69년 工大卒·前韓國機械研究院)=최근 과학기술처 기계·소재연구조정관에 就任.

▲洪相福(69년 工大卒·前浦鐵專務)=지난달 10일 열린 포항제철 이사회에서 부사장으로 昇進.

▲李東赫(69년 商大卒·高麗海運社長)=지난달 12일 「해운의 날」을 기념해 시상한 은탑산업훈장을 受賞.

▲徐廷華(70년 師大卒·弘益大敎授)=최근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推戴.

▲權寧杓(70년 大學院卒·延世大敎授)=최근 열린 美國 Earth Environ-

結婚

同窓會館 冠岳홀

*이훈진군(87년 社會大卒)박금희양=4월2일 11시.

*박태선군(89년 農大卒)곽명숙양=4월2일 12시30분.

*남영호군(88년 文理大卒) 이윤정양=4월2일 14시.

*이정근군(90년 農大卒)서경아양=4월2일 15시30분.

*김영준군(91년 自然大卒)김미향양=4월3일 12시30분.

*홍정기군(86년 工大卒)김경미양=4월3일 14시.

*최양규군(89년 師大卒)임경준양(89년 看護大卒)=4월3일 15시30분.

*정환형군·이미용양(89

▲鄭英昊(50년 文理大卒·母校名譽敎授)=독립유공자이며 학술원 회원이었던 鄭동문이 지난 3월17일 보훈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洪寅杓(64년 文理大卒·母校敎授)=지난 3월7일 간암으로 별세했다. 1941년 충남 홍성태생으로 60년 모교에 입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1년부터 모교에 재직해 왔다. 「孟子」「唐代古文論에 대한 문제점」「唐代문학의 시기구분문제」등의 논문을 남겼다.

▲朴洪奎(母校名譽敎授)=지난 3월9일 간경화증으로 별세했다. 1943년 와세다大를 졸업, 46년 모교에 부임해 38년간 재직해 왔다. 「플라톤의 대화편 유티데모스의 분석」「희랍철학 소고」「베르그송에 있어서의 창조적 자유의 이념」등의 논문을 남겼다.

▲李殷雄(45년 農大卒·母校名譽教授)=최근 북한농업연구회(가칭) 발족에 따라 초대회장에 推戴됐다.

▲池憲澤(47년 齒大卒·國際齒學師會會長·本會理事)=최근 국제치의하 평생교육학사회 초대회장에 就任。

▲金永敦(49년 師大卒·大韓三樂會會長·前師大同窓會長·本會理事)=4월9일 오후3시 대한상공회의소 12층 AB홀에서 著書「民族의 務持와 教育」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鄭仁鎔(51년 師大卒·前徽新高校校長·本會理事)=최근 인덕공업고등학교 제4대 교장에 就任。

▲金桂洙(52년 文理大 政治學科卒·韓國外國語大名譽教授·本會理事)=내년 光復50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열린 총리 직속기구로 발족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 選任됐다.

▲沈昞求(53년 商大卒·母校教授)=최근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후학들로부터 정년퇴임기념 논문집을 봉정받았다.

▲高在君(55년 農大卒·前母校教授·本會理事)=지난달 19일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형강의동에서 후학들로부터 정년퇴임기념논총을 봉정받고 고별강연을 했다.

▲金昌基(55년 法大卒·駐日本國大…

▲李奭熙(55년 法大卒·大宇通信會長·本會副會長)=지난달 13일 효창공원 臨政墓域에서 石吾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李東寧선생 제54주기 추모제를 거행했다.

▲崔斗衡(55년 法大卒·聖元開發會長·法大 九法會會長·本會理事)=최근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초대회장에 選任。

▲林瑢圭(56년 工大卒·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長)=최근 대덕연구단지내의 40개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의 신임회장에 選任。

▲吳範謨(56년 文理大卒·韓國精神文化研究院教授·本會理事)=지난달 11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후학들로부터 回甲기념논문집을 봉정받았다.

▲尹鍾爀(57년 文理大卒·弘益大教授·本會理事)=최근 영국 캠브리지大 객원교수로서의 활동을 마치고 歸國。

▲韓再垠(58년 工大卒·中小企業經營者協會長)=최근 이란대사와 양국 중소기업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일본 동경에서 열린 日本 뉴비지니스대회에 참석。

▲金東哲(59년 工大卒·(株)宇成産業社長)=최근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7대 회장에 選任。

▲李昌紀(59년 藥大卒·環境管理工團理事長·本會理事)=지난달 24일 국립환경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Earth Environment 大 명예환경과학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金炯英…

회장에 推戴됐다.

▲全泳杓(60년 文理大卒·新丘專門大教授)=최근 한국출판학회 제1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수상자로 選定。

▲李東鎬(62년 文理大卒·서울市立大教授·政治學科14同期會長)=지난달 6일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장에 就任。

▲辛中鉉(62년 商大卒·前第一銀常務)=최근 제일은행 미주 본부장에 就任했다.

▲金正吉(62년 音大卒·母校 音大教授)=지난달 29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回甲기념 작품연주회를 가졌다.

▲梁精康(62년 齒大卒·梁精康齒科院長·本會理事)=최근 마닐라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태평양 치과연맹총회에서 수석부회장에 被選。

▲許鎭奎(63년 工大卒·日進그룹會長·冠岳會理事)=지난달 10일 학군사관후보생 예비역중앙회 제4대회장에 就任。

▲朴雲緖(63년 文理大卒·前商工部第一次官補)=최근 공업진흥청장에 就任。

▲柳莊熙(63년 商大卒·對外經濟政策研究院長·本會理事)…

事)=최근 (株)製鐵化學 대표이사 사장에 就任했다.

▲卞柱仙(64년 師大卒·大林聖母病院室長·本會理事)=최근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제18대 총재에 就任。

▲朴國弘(65년 法大卒·前釜山地法判事)=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開設。 부산 서구 부민동1가 2의3 대광오피스텔1003호。 전화 051-241-0119。

▲李在祥(65년 法大卒·慶熙大教授)=최근 한국형사정책학회 정총에서 부회장에 選任。

▲池明澈(65년 法大卒·前釜山高檢首席檢事)=최근 변호사업무를 開始。 경남 창원시 사파동 124-10。 전화 89-7800。

▲朴容晟(65년 商大卒·斗山그룹副會長·本會副會長)=최근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 제13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選任됐다.

▲林敞鎬(65년 行大院卒·前內務部次官補·本會理事)=최근 경기도지사로 榮轉했다.

▲柳晟俊(66년 文理大卒·外國語大教授)=지난달 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중어중문학회 정총에서 94년도 회장에 被選。

▲張虎男(67년 工大卒·韓國科技院教授)=지난달 10일 尙虛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5회 상허대상 수상자로 選…

ment 大 명예환경과학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金泰天(70년 新大院卒·前大韓證券業協會常務·本會理事)=최근 한국증권연수원원장에 就任。

▲曺圭一(70년 行大院卒·前農林水産部次官)=최근 축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4H후원회 정총에서 제19대 회장에 就任。

▲趙容直(70년 新大院卒·國會議員)=최근 송파을 지구당 위원장 직무대리로 就任。

▲李瑾榮(72년 商大卒·前財務部稅制室長)=최근 한국투자신탁 임시주총에서 신임사장에 選任。

▲崔承俊(72년 音大卒·淑明女大教授)=최근 열린「創樂會」정총에서 제6대 회장에 被選。 창악회는 현직 교수 80여명이 활동하는 작곡동인 단체이다.

▲金光南(74년 齒大卒·母校教授)=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제19차 美악안면동통학회에 참석, 악관절장애 세계학술대회를 오는 2천년 서울에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崔運烈(74년 商大卒·西江大教授)=최근 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就任。

▲沈錫求(75년 工大卒·前美國ABB-CE社)=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榮轉。

▲崔忠玉(75년 師大卒·京畿大教授)=최근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에 推戴。

▲金東麗(75년 音大卒·曉園大教授)=오는 4월18일 오후7시30분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클라리넷 독주회를 갖는다.

▲安萬濬(76년 社會大卒·前大鮮酒造專務)=지난달 12일 대선주조 대표이사 사장으로 昇進。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3回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揭示板

년 看護大卒)=4월5일 14시.

＊이현주군(91년 人文大卒)양정이양=4월7일 13시.

＊김선영군(83년 工大卒)김윤호양=4월9일 12시30분.

＊박양수군(91년 社會大卒)김지숙양=4월17일 11시.

＊이창헌군(89년 工大卒)일주환양=4월17일 14시.

＊이근중군(85년 人文大卒)위태례양=4월17일 15시30분.

＊이재천군(91년 經營大卒)박미경양=4월23일 11시.

＊고만석군(93년 經營大卒)강경미양=4월23일 12시30분.

＊지현탁군(87년 社會大卒)구본영양=4월23일 14시.

＊정원식군(90년 師大卒)양정혜양(90년 師大卒)=4월30일 11시30분.

＊박세현군(88년 師大卒)이의진양(92년 師大卒)=4월9일 14시.

＊강선구군(88년 社會大卒)홍경애양=4월9일 15시30분.

＊김영준군·윤명미양(91년 社會大卒)=4월10일 11시.

＊곽한규군(92년 社會大卒)최은숙양=4월10일 12시30분.

＊임홍주군(92년 工大卒)김미혜양(91년 藥大卒)=4월10일 14시.

＊박종필군(88년 農大卒)이종순양=4월10일 15시30분.

＊정순섭군(87년 法大卒)신정화양=4월16일 11시.

＊나규철군(88년 社會大卒)강경실양=4월16일 12시30분.

＊오광욱군(87년 自然大卒)이화숙양=4월16일 14시.

＊이병주군(90년 農大卒)조은경양=4월16일 15시

교수의 한마디 말씀…

學問연구와 後學육성에 半平生을 바쳐온 母校교수 열 일곱분이 지난 2월28일정년퇴임으로 母校를 떠났다.
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獻身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한마디의 말씀을 받아 싣는다.

沈永根교수
農生大·農經濟學科

농산물流通學 개척에 전념

農産物流通學이란 새로운 분야의 개척에 여념이 없는 沈永根교수는 정년퇴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農水産部산하 「農林水産情報센터」로 자리를 옮겨 농수산 관계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느라 여념이 없다.

『학문연구에 老少가 불문이듯이 학자에게 정년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노익장을 과시하는 沈교수는 농촌출신이라 農經濟學을 전공하게 됐다고 회상하며 開放波高에 더욱 농촌이 피폐하게 된데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지난 53년 모교 졸업후 57년부터 38여년간 재직해온 沈교수는 학부에 이색적인 「農産物流通學」을 처음 개설, 『추운겨울에 농산물유통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학생들과 함께 뛰어다닌 것이 새삼스럽다』고 회고하며 農業經濟學분야의 저술도 계획하고 있다.

徐世鈺교수
美大·東洋畵科

자기완성위해 통찰력 갖춰야

50년 美大졸업후 40년가까이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美大學長과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徐교수는 우리 畵壇의 산증인으로 한국미술의 국제화와 전통미술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화가로서 그림이외에 漢學과 漢詩에도 조예가 깊은 徐교수는 지난 89년부터 해마다 중국작가들과 교류전을 갖고 있으며 한중미술협회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왔지만 이뤄 놓은게 없다』고 겸손해하는 徐교수는 후학들에게 『학문이나 예술은 자기완성이 1차적 목표이며 그것에 도달하면 인류번영의 길목에 서게 되는 것』이라며 『조그만 기술·방법의 습득에 급급하지 말고 독서와 사색을 통해 통찰력을 기르는데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金敎滿교수
美大·產業디자인科

자기주장·창의적자세 긴요

56년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영국 세인트마틴스미술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수학한 金교수는 한국 그래픽디자인계의 발전과 인력양성에 全力을 쏟아왔다.

최근 「한국 방문의 해」 심볼마크등을 제작하기도 한 그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많은 작품을 만들어왔다.

金교수는 『자기 주장이 없는 학문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는 창의적인 자세를 기르기 바란다』고 말하고 『결과보다 과정이 소중함을 인식,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겸허한 자세로 배우는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술가는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라는 金교수는 가을의 개인전과 동경·뉴욕전을 계획하고 있다.

沈炳求교수
經營大·經營學科

奉仕하는 마음으로 일관해

지난 57년 모교에 강사로 부임하여 37여년간 봉직해온 沈炳求교수는 『내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같아 오히려 가뿐한 마음이 앞선다』고 퇴임소감을 털어 놓았다.

沈교수는 연구와 강의를 계속하면서도 韓國經營學會長, 韓國證券學會長, 韓國財務學會長등을 역임하며 학회 활동에도 열의를 기울여 왔는데 퇴임후에도 모교에서 財政學분야의 강좌를 계속 맡게됐다.

『6·25당시 오발탄으로 다친 다리로 인해 한동안 실의에 빠졌던 때가 있었는데 「塞翁之馬」의 고사를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큰 욕심을 버리고 살아왔다』고 회상하는 沈교수는 늘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高在君교수
農生大·農工學科

農生大 시설·장비 보강 아쉬워

農生大 學長을 끝으로, 농생대 도서관장, 학생담당 學長補, 교무담당 學長補, 농업개발연구소장등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지난 55년 모교 졸업후 38여년간 봉직해온 高在君교수는 『외롭지 않은 외로운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정년퇴임소감을 밝혔다.

『세계의 유수한 선진대학과 비교해 볼때 특히 農生大가 시설·장비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음이 매우 안타깝다』고 학교행정을 담당해본 경험을 피력하기도.

『직접 배출한 제자들이 榮山江 하구언과 揷橋川 방조제등을 쌓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낸 것이 가장 뿌듯한 기억』이라는 高교수는 後進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師道를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潘性紈 교수
農生大·農經濟學科

基本原理·定義에 충실하길

『농업도 勞動節約的이고 技術·資本集約的인 형태로 발전해야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지론을 펼치는 潘性紈교수는 농업에 企業的인 요소를 가미해서 마케팅과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5년 모교를 졸업, 71년 美미네소타大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農業生產性에 관한 硏究를 持續, 「農業生產性의 經濟的 考察」(韓國事例), 「食糧問題와 農業生產性」등 論文을 포함, 著書 16권과 34편의 보고서등을 발표했다.

『학문에 임하는 자세가 농부가 농사짓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일 수 있어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潘교수는 基本原理나 定義에 충실할 것을 後進들에게 당부한다.

李炳璨교수
人文大·獨文學科

능동적 학문연구자세 필요

『배운다는 수동적 자세에서 연구한다는 능동적 태도를 가질 때 자기계발과 학문성취에 매진할 수 있다』고 말하는 李炳璨교수는 지난 55년 모교 獨文科를 졸업, 63년 商大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30여년간 獨語獨文學 연구에 젊음을 바쳐왔다.

『정년퇴임이라는 갑작스런 변화가 닥쳐 전혀 실감나지 않는다』고 웃는 백발의 노교수 얼굴엔 인자한 미소가 번졌다.

李교수는 평소 학문자세를 敎學相長으로 일관해왔다고 밝히며 後學들도 능동적인 연구자세로 학문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말을 잊지 않았는데, 저서로는 獨語學분야에 「독일말의 親屬格研究」 「依存文法의 理論과 實際」 등이 있고 獨文學분야에는 「知와 사랑」(헤르만 헤세著)외 8편의 번역작품이 있다.

羅鶴鎭교수
人文大·宗敎學科

未來향한 가치관 정립 시급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가치관의 정립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 아쉽다』라고 말하는 羅鶴鎭교수는 퇴임후에도 강의요청이 쇄도해 바쁘게 보낼 형편이라고.

『그동안 관심 가졌던 분야의 저술작업도 해야 하는데 외부 강의만 6과목을 맡게 돼 다음 학기에는 정신을 못차릴 정도』라며 환하게 웃는 羅교수는 건강하게 퇴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며 늘 기쁜 마음으로 강의에 임해왔다고 교직생활을 회고했다.

지난 57년에 모교 宗敎學科를 졸업하고 68년 美프린스턴大에서 석사학위, 75년 박사학위를 받은 후 77년부터 모교에 재직해왔는데 宗敎倫理學이 그의 전공.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며,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동창회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 費 구 분—

·一般會員	2만원	·監 事	30만원
·理 事	7만원	·副會長	50만원(公職者)내지 1백만원(一般)
·常任理事	20만원	·會 長	500만원

停年退任 열일곱분

실질적 교육방법 모색해야

金海東교수
行大院·行政學科

전쟁이 한창이던 53년 부산시절 법대를 졸업한 金교수는 58년 법대강사로 출발, 59년에 행정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35년간 학문의 세계에 묻혀 살아왔다.

행정대학원에 있으면서 특히 관료부패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온 金교수는 최근 불편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용으로 「관료부패론」이라는 책을 탈고해 올 6월경에 발간할 예정이다.

평소 모교에 몸담아 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金교수는 『후진교수들이 우선 교수들 사이의 인간적 교류를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현재 대학의 공부방법이 비현실적, 형식주의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좀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새 패러다임 연구에 注力할터

安海均교수
行大院·行政學科

『과거 암울했던 시대에도 연구실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는데 애인처럼 여기던 이 연구실을 떠나게 된 것이 무엇보다 아쉽다』

54년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 59년 행정대학원 최초의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35년 동안 행정대학원을 떠난적이 없는 安교수는 퇴임한 후에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행정학 패러다임 연구에 주력하는 제2의 연구생활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정년퇴임시기가 변하지 않는 탓에 한창 가르칠 수 있는 나이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것이 무척 서운하다는 安교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모교에서도 교수들이 특정지역 연구의 전문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생화학의 장미빛 미래 전망

禹源植교수
天然物科學硏·生化學

禹교수는 48년 약학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 55년부터 생약연구소(現천연물과학연구소)에 몸담아 연구활동을 해왔다. 한국생화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국내외 학술지에 실린 총 2백50여편에 이르는 논문과 천연물로부터 발견해낸 42종의 신물질은 생화학 및 천연물과학분야에 대한 禹교수의 연구 열정을 보여준다.

『생화학은 인문학으로 얘기하면 국문학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손을 대기는 어려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만 크게 가지면 국제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禹교수는 『지난 시기동안 지원체계가 미비해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폭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생화학의 장미빛 미래를 전망했다.

國際 競爭에 더욱 주력하길

李定均교수
醫大·醫學科

『상당히 긴 세월이었지만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조용히 지내와 다행이고 정신과학교실이 이만큼 성장해온 사실이야말로 축하해야 할 일』이라는 文교수.

54년 조교로 부임한 이래 만40년의 세월을 정신과학교실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온 李교수는 「한국정신장애의 역학적 조사연구」를 비롯 2백 40여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정력적인 연구활동을 계속해왔다.

『모교가 국제경쟁에 더욱 눈을 돌려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李교수는 교수들이 해외로 자주 나가 세계의 석학들과 접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국학술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한학기에 한번으로 제한하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학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세계최초 白血病抗源 개발

李尙國교수
醫大·醫學科

질병의 본태를 규명하는 일이 의학의 근본이라 생각하여 병리학을 택했다는 李교수는 53년 의대에서 처음 교단에 발을 디디면서 40여년간 연구와 실험인생으로 외길을 걸어온 學者이다.

그만큼 종양학, 면역학에 대한 자부심과 연구업적 또한 대단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백혈병의 항원을 개발하는데 성공,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모름지기 학자가 되려면 옛 선비들처럼 세상물정은 접어두고 오직 연구에 몰두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며 인생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피력한 李교수는 『퇴임후 병리학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꿈이며 평소 즐기던 운동, 사진, 그림 등의 취미외에도 외국어까지 몇개 더 배우고 싶다』고 老益壯을 과시한다.

同窓會 활성화에 총력 傾注를

崔鍾起교수
行大院·行政學科

『우리나라가 통일된 독립국가로 「홀로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자세로 연구해왔다』

崔교수는 54년 법대 졸업후 59년 신설된 행정대학원에서 국제기구와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65년에는 「국제관계연구소」를 창설, 학술교류와 민간차원에서의 국제외교에 큰 업적을 남겼다.

國際化라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현 시점에서 국경이라는 보호막으로 자신들을 감추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제는 학교와 학생들도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 눈을 세계로 돌려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동문들에게 『아직도 미흡한 감이 있는 동창회 활성화에 여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도 보완, 母校 自立이룩해야

朴玉茁교수
人文大·佛語敎育科

52년 文理大 불어불문과를 졸업하고 59년부터 모교 강단에 선 朴교수는 한국불어불문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한불사전편찬방법론」「한불문법적기호소 대비연구」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朴교수는 지나치게 외국풍에 젖어들어 우리의 것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며 서양의 것을 배우면서도 우리의 것 특히 우리말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기를 당부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朴교수는 『모교가 세계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부간섭을 받지 않는 학문의 장이 돼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예산의 자립을 할 수 있는 자립대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문욕심크게, 세속욕심 적게

閔獻基교수
醫大·醫學科

『학생들과 함께 강당, 병실, 세미나실을 분주히 오가며 보낸 시간들이 너무도 소중한 추억이라 생각합니다』

51년 의예과를 졸업하고 54년부터 줄곧 모교에 몸담아 온 閔교수는 대통령 主治醫, 대한내과학회 회장, 국제당뇨병기구 서태평양지구 회장 등을 역임했고 84년에는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상한 바 있다. 「臨床內分泌學」 등의 저서들은 내분비학 및 당뇨병 치료에 끼친 閔교수의 지대한 공헌을 보여준다.

환자들을 대할때나 학생을 대할 때나 항상 인간적인 감화를 주려고 노력했던 閔교수는 『학문적 욕심은 끝없이 갖되 세속적 욕심은 되도록 적게 가졌으면 하고 인간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후학에게 당부했다.

삶이 확장되는 계기로 삼아야

文桐魯교수
醫大·醫學科

『의사이자 교수였던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어린이의 피는 어른의 50배일 정도로 어린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소아과를 선택한 文교수는 52년 의대를 졸업, 59년부터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대한소아내분비학연구회 초대회장,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然湖」라는 雅號에 걸맞게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한 文교수는 『관찰은 과학의 출발이고 관찰한 바를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며 관찰의 중요성을 후학에게 당부했다.

文교수는 예전부터 부러워 해온 아마추어 무선통신사(HAM) 활동에도 참가하고 싶다며 『정년퇴임을 삶이 확장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同窓會館 利用안내

會館 5층에 마련된 「冠岳홀」을 各種行事場으로 貸與하고 있습니다. 4백여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大小宴會에 알맞게 꾸며져 있으며 특히 結婚禮式場으로 많이 活用되고 있사오니 많은 利用 있으시기 바랍니다. 週末이나 公休日은 혼잡하오니 가능하면 平日을 利用해 주시면 더욱 친절하게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豫約 및 問議 : 702－2233(代)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93호

名譽敎授 칼럼

格言·金言·箴言의 意味 바로 알아야

解釋 誤導로 의미 訛傳돼

訓詁는 學問硏究의 始發點

洪 文 和
(母校名譽교수)

우리가 흔히 즐겨 인용하는 格言이 많다。事理에 꼭 맞아、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가 되는 짧은 말들인데 金言이니 俗談 또는 더 거룩하게 箴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

워낙 짧은 글귀 가운데 眞理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지、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결과가 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옛부터 학문하는 사람들은 訓詁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옛 글의 字句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훈고이다。

西洋醫學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의 잠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간단명료한 문장으로 의학자가 명심해야 할 語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첫 문장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란는 말로 되어 있다。「Vita Brevis、Ars Longa。」(Life is short、the Art long。)

이 잠언에서 느끼는 뜻은 인생은 짧고 허무한 것이지만 예술은 길게 오래 간다라고 예술이 이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본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잠언을 끝까지 읽으면 알 수 있다。「Vita Brevis、Ars Longa、Occasio Praeceps、Experientia Fallax、Judicium Difficile。」「인생은 짧고 學術의 길은 멀다。기회는 잃기 쉽고 試圖는 뜻대로 되지 않으며 판단은 어렵다」

醫術을 비롯해서 무슨 학술이건 통달하려면 힘들고 먼 길인데 인생은 너무나 짧으니 寸陰을 아껴서 연구하라는 뜻이 「Vita Brevis、Ars Longa。」임을 알 수 있다。Ars도 原語로는 「테크네」(Τεχνη)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藝術도 멋있고 훌륭하지만 다른 學術과 기술도 터득하려면 길이 멀고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와 같은 예를 한가지만 더 들면 「Mens Sana in Corpore Sano。」(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명언이 있다。로마시대의 詩人이던 Juvenal이라는 사람의 글귀이다。이것만 보면 육체만 튼튼하면 정신은 저절로 건전하게 되는 것처럼 體育至上主義의 느낌이 든다。

그러나 글귀를 모두 읽으면 「Orandum est ut sit mens sana in corpore sano」라고 되어 있으며 우리의 祈願은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같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모두 다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소망하는 글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극히 간단한 두가지 예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뜻으로 전달될 염려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말이나 글은 원래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뜻을 헤아려야지 말꼬리를 잡고 서로 왈가왈부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分派가 되기 쉬운 것 아닐까。

같은 聖經冊이나 佛經이면서도 풀이를 서로 다르게 하여 宗派들이 생겨나고 같은 孔子님인데도 어떤 때는 追放하고 또 어떤 때는 다시 復權을 시키고 하니 그런 聖賢들도 어처구니가 없어 하실 것이다。

옛부터 내려오는 補藥이니 養生法이니 하는 것도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면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壽命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健康敎室

前立腺癌 (2)

惡性腺癌腫、歐美男性에 빈번

食生活慣習등 환경요인에 原因

李 相 殷
(母校醫大교수)

前立腺癌은 전립선을 구성하고 있는 泡狀細胞에서 발생되는 악성 腺癌腫으로、극동지역에서는 비교적 드물지만 구미지역에서는 男性에서 발생하는 惡性腫瘍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전체 악성종양중 약20%를 차지하고 있으며、구미지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동안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은 약 12%정도이며、전립선암에 의해 사망할 확률은 약 2·6~4·3%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선두에서 밝혔듯이 한국을 포함한 극동지역에서 그 빈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동양인들이 유전적으로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백인이나 흑인들에 비해 낮은 人種的 특성때문으로 생각되며、또한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일본에서 미국으로 移民간 사람을 대상으로 전립선암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그 빈도가 현격히 증가된 소견을 보여、食生活 習慣 등의 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高脂肪食을 많이 먹고 야채를 적게 먹는 경우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높으며、한국도 식생활이 西歐化됨에 따라 전립선암의 빈도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는 카드뮴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을 가진 경우、가족중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性生活이 문란한 경우、도시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 전립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초기 전립선암은 症狀이 거의 없어、일상적인 정기검진에서 肛門을 통해 전립선을 觸知하거나、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硬直腸超音波檢査중 우연히 발견되며、암이 어느정도 확산되어 요도나 주위조직을 침범하면 排尿障碍나 血尿 등이 나타날 수 있고、경우에 따라 특별한 局所症狀없이 암이 뼈로 轉移되어 要椎部와 骨盤部등의 뼈의 疼痛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초기 전립선암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는 이미 환자중 반이상에서 병이 진행되어 전립선 주위조직으로 확산되어 있거나、뼈나 다른 遠隔臟器로 轉移되어 있어 치료의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전립선암의 豫後는 암의 分化度에 따른 암세포의 성질과 병기에 따라 주로 좌우되며、또한 환자의 나이、高齡에 의한 다른 同伴疾患의 유무도 豫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대체적으로 초기의 분화도가 좋은 전립선암의 경우 치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예후는 좋으며、病期가 높고 분화도가 나쁜 경우는 치료에 관계없이 예후는 좋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중등도의 분화도를 보이며、이런 경우 치료유무와 시기에 따라 예후에、큰 차이를 보이므로 早期診斷과 치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또한 초기의 분화도가 좋은 전립선암의 경우도 환자의 餘命이 10년 이상으로 길 경우 치료유무가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평균수명이 증가됨에 따라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은 증가되리라 생각된다。

과거 전립선암의 진단은 肛門을 통해 전립선을 만져서 전립선내에 돌처럼 딱딱한 결절이 촉지되는 경우、전립선 생검을 통하여 병리조직학적으로 전립선암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전립선비대증으로 수술한 뒤 組織截片에서 전립선암이 우연히 확인됨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립선特異抗原과 硬直腸超音波檢査 및 Biopty gun을 통한 無痛性의 전립선 生檢法의 임상사용의 증대로 전립선암의 조기진단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이중 전립선특이항원은 전립선 조직에서만 분비되는 당단백의 일종으로 전립선암의 조기진단뿐 아니라 치료효과 판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경직장 초음파검사는 전립선암의 진단과 주위조직의 침범 유무의 판정、정확한 위치의 전립선 생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립선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방법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없지만 40대 이후에는 가능하다면 1년에 한번정도라도 항문을 통한 전립선촉진과 전립선특이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전립선암의 치료는 병기 및 분화도、환자의 나이、同伴疾患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대체적으로 흉부X선검사와 뼈주사、경직장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전립선내에 국한된 경우는 試驗的開腹術을 시행하며、骨盤內 淋巴腺으로의 轉移유무를 판단하여 전이가 없는 경우 根治的 前立腺摘出術을 시행하며、수술을 원치 않거나 수술을 이기지 못할 경우 방사선치료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치료에 따른 尿失禁이나 勃起不全 등의 부작용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완치된다。전립선암의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는、睾丸摘出術이나 男性호르몬 拮抗劑를 사용하여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요법으로 치료하게 되며、치료초기에는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남성호르몬의존성을 보이므로 암의 크기가 줄며、骨疼痛도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나 평균 2년정도가 경과되면 호르몬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세포가 다시 성장하여 암이 진행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이후 항암화학요법을 써 보기는 하지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진행된 암에서는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으며、암의 진행에 따라 분화도가 나쁘게 변하기도 하므로 조기진단 및 치료가 더욱 더 중요하며、초기의 분화도가 좋은 전립선암의 경우도 과거 주기적인 추적관찰을 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최근 환자의 나이가 많지 않고 전신상태가 좋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추세이다。

工大女性同門會

工大女性同門會는 60년대에 창립됐다. 역사는 30여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他단과대와는 다른 상황때문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에 들어와서야 가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工大는 科特性上 여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아 여성동문들의 모임을 따로 만들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명목을 유지한는데에도 崔安分동문(53년卒)을 비롯한 초창기 회원들의 30년이 넘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금년엔 13명이 입학했고 제일 많은 경우 40여명이 입학하는등 해가 거듭될수록 회원의 수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축적된 잠재력에 힘입어 현재는 총2백62명의 회원이 함께 하는 모임으로 자리잡게 됐다.

基金마련이나 장학금 수혜등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지만 회원의 慶弔事에는 보조금을 책정해 전달하고 있으며 1989년에는 회원명부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92년 定總을 마치고 崔명예회장 自宅에서 기념촬영.

왕성한 意慾으로 各界서 맹활약
組織強化 이뤄 奬學事業 계획

同會는 매년 4、5월중에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있으며 2년마다 任員改選을 한다. 정기총회는 신입회원의 환영식을 겸해 개최하고 있어 선후배가 同參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고 있으며 臨時理事會는 案件이 있을때마다 수시로 열어 중요한 사항을 처리해 가고 있다.

지난 93년 6월 호암생활관에서 열린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환영회에서는 崔安分회장을 명예회장으로 推戴하고 朴順子동문(54년卒・母校무기재료공학과장)을 會長에, 副會長에 李榮書동문(54년卒)을 選任했다. 또 總務에 楊璨集동문(56년卒), 會計에는 張貞堯동문(59년卒・前신풍제지부장)을 留任한 바 있다.

회원數가 많지는 않으나 「稀少價値」만큼이나 회원들은 各界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체로 연구활동을 계속하는 동문이 많기 때문에 學界에서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진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車玉善(56년卒・한양대교수)閔吉子(57년卒・국민대교수)池 淳(58년卒・연세대교수)朴和洙(67년卒・국민대교수)裵是花(76년卒・경원대교수)崔貫淑(78년卒・인덕공전교수)姜順玉(57년卒・부광여고교장)동문등이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 박사과정에 있는 동문들도 많아서 金孝淳(83년卒)、崔美愛(85년卒)、權榮美(86년卒)、林惠淑(86년卒)、崔允僖(86년卒)、姜美先(87년卒)、尹星姬(87년卒)、金志玹(88년卒)동문 등이 母校에서、李知玧(89년卒)동문이 포항공대에서、金敬美(86년卒)、金曉淑(86년卒)동문등이 KAIST에서 研究중이며 李禎娥(82년卒・美UCLA)、李寅載(86년卒・美미시건大)동문처럼 外國에서 留學중인 회원들도 상당수 있다.

그외에도 鄭俶澈(62년卒・장용식 특허법률사무소) 李庸信(84년卒・한국IBM)、宋朱玉(84년卒・럭키중앙연구소)、朱恩心(85년卒・한국IBM기술부)、朴銀淑(86년卒・영인화학)、孫恩英(87년卒・삼보컴퓨터 기술연구소)、李英玉(87년卒・한국전력기술)、張京順(87년卒・조달청 감리1과)、河 蘭(87년卒・한국전기통신공사)、金惠玉(88년卒・선경건설)、秋豊映(89년卒・쌍용정유)、白英蘭(89년卒・한국통신연구개발단)、任眞嬉(89년卒・금성정보통신연구소)、金美姬(91년卒・서울건축)、鄭好珍(91년卒・KPK통상)동문등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충실히 발휘하고 있다.

同會는 오는 4월에 94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환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朴회장은 「앞으로는 친목단체로서의 활동에서 더 나아가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기금을 마련, 장학사업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동문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史學科同窓會

韓國史 및 國學研究의 요람으로 뿌리내린 모교 史學科가 역사연구및 사학발전의 체계화를 위해 지난 69년부터 國史學科 東洋史學科 西洋史學科로 分科된 이래 지금까지 배출된 史學전공 출신들은 史學界를 비롯 언론계、교육계、출판계、실업계등에 기라성같이 자리를 잡고있다.

史學科가 3史學科로 分科된지 25년이 되었지만 「史學科同窓會」(회장 李宗馥)라는 단일 기치아래 단합、동문간의 유대와 결속을 다져가고 있다. 지난 80년 각 期別및 科別 중심으로 모임을 가져오던 것을 통합、초대회장에 韓沽劤동문(47년卒 당시母校教授)、총무이사에 韓永愚동문(62년卒 모교교수・奎章閣관장)을 각각 선출하고 활성화를 도모한 이래 分科 前後세대간에 출신과는 달라도 응집력을 발휘、선후배간의 학문연구및 他科간의 연구교류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같은 同科동문들의 활동에 대해 李宗馥회장은 『역사연구란는 큰 줄기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3史學科로의 分科』라고 지적하며 史學界의 각분야에서 동문들의 활동도 으뜸이라고 자랑한다.

또한 同會는 기금으로 모은 2천여만원을 기금으로 3史學科에 장학금을 수여해오다 지난 92년부터는 각과 支援費로 전용、각과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기기 및 도서구입비로 쓰는 한편 「3史學科체육대회」를 93년도부터 개최

正統이룬 史學界・國學研究의 터전돼
3史學科에 奬學金・事務器機 지원도

하면서 행사지원비로 쓰고 있다는 同會 崔甲壽총무이사(76년 西洋史學科卒・母校교수)의 설명이다.

▲李宗馥회장

同會는 매년 1월2일을 新年賀禮會겸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7월 총회개최때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崔총무이사는 말하고 있다.

한편 同科출신 여성동문의 모임인 蘭友會(회장 鄭玉子 65년卒・母校교수)가 결성돼 여성동문간의 학문연구와 사회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해오고 있다.

同科출신들은 현재 史學界와 史學教育의 핵심멤버로 활약하고 있는데 47년에 졸업한 高柄翊(방송위원회委員長) 孫寶基(한국선사문화연구소장) 李基白(한림대 교수) 全海宗(인하대 교수) 韓沽劤(정신문화원 교수)동문을 비롯하여 閔錫泓(48년卒・모교西洋史學科) 李普珩(48년卒・西江大) 閔斗基(55년卒・모교東洋史學科) 李蘭暎(57년卒・東國大) 鄭良謨(58년卒・국립중앙박물관장) 韓炳三(58년卒・前국립중앙박물관장) 崔承熙(63년卒・모교國史學科) 崔柄憲(67년卒・모교國史學科)동문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과는 달리 崔完秀동문(65년卒・간송미술관장)처럼 韓國古美術史및 民族美術분야에 남다른 연구 및 접근방법으로 이채를 띠는 재야사학자도 있어 주목받기도.

한편 국내 言論界에는 李宗馥(56년卒・前중앙일보편집국장) 宋秉湖(53년卒・서울신문외신부장) 洪思重(56년卒・조선일보논설위원) 金季哲(61년卒・KBS시청자본부장) 尹赫基(61년卒・KBS부사장) 任漢淳(61년卒・연합통신외신부장) 刑鎭漢(61년卒・MBC진주방송국사장) 姜大衡(58년卒・한국일보부국장) 李濟薰(64년卒・중앙일보편집국장) 申東徹(65년卒・중앙경제신문국차장) 金眞豪(65년卒・MBC부국장) 權寧韶(65년卒・중앙일보논설위원) 柳秀正(68년卒・AFP통신한국지국장) 劉正顯(67년卒・조선일보부장) 金鍾心(65년卒・동아일보부장) 朱明塡(65년卒・연합통신부장)동문 등이 맹활약중이다.

교육계에는 前述한 史學界 教授를 포함하여 劉基鎬(53년卒・公州教大교수) 申芝鉉(57년卒・仁川教大교수) 金基周(58년卒・서울教大교수) 吳一煥(61년卒・大韓教聯교권국장) 崔國鎭(67년卒・東北中교장) 孫鍾聲(64년卒・성암여중교장) 金亨泰(63년卒・梨花女高교감)동문 등이 봉직하고 있다.

또 출판및 실업계에는 崔哲海(53년卒・正音文化社사장) 全武培(56년卒・도서출판새누리・동방문화인쇄대표、同會부회장) 李鎭熙(58년卒・斗山產業부사장) 申允植(59년卒・한국데이컴사장) 李敎馥(60년卒・동양시멘트전무) 金京熙(61년卒・知識產業社사장、同會부회장)동문 등이 있는데 政官界에도 朴敬錫(59년卒・前국회의원) 金聖鎭(59년卒・前문공부장관) 朴俊炳(60년卒・국회의원) 朴相禹(64년卒・농수산부국장)동문 등이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史學科同窓會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3史學科」의 융합을 위한 行事를 상반기중 가질 계획이라고 崔총무는 밝혔다.

서울大學校同窓會報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93호

新刊

■ 의료 인간학

— 文國鎭著

55년 醫大卒·高大명예교수이며 醫師評論家인 著者는 '진찰실의 법의학' '생명법의학' '의료법학' '사회법의학' '의료와 진단서' '간호법의학' '임상법의학'등 저술을 통해 醫療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醫療法學的인 지식을 의료인과 법조인들에게 제공해 널리 알려졌을 뿐만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활동등으로 法醫學者로도 알려져 있다.

〈醫療人間學〉은 醫學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의사라는 직업이 自己資質에 적합한가를 비판하고 進學의 진로를 찾게 하는 안내역과 醫大生들에겐 全人的인 의료를 역설,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醫師들을 위해선 진단, 病名告知, 치료에 있어서의 환자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이를 체계화시킨데 큰 의미가 있다.〈청림출판사刊· 값5천원〉

■ 당신의 마음 당신의 건강

—朴助烈 정신건강 글모음 [1]

58년 醫大卒, 神經精神科 專門醫로서 釜山大 醫大부속병원장을 지낸 著者가 '마음이 바로 健康을 좌우한다'고 力說하는 내용으로 이 책을 꾸미고 있다.

現代病의 80%가 神經性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듯이 '病은 마음으로부터' 라는 말도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음을 볼때 精神疾患을 다뤄온 著者가 그동안 여러 지면을 통해 발표했던 정신건강에 대한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스트레스, 노이로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될 때가 있다. 이 책은 정신건강의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배달사刊· 값5천원〉

■600년 수도 서울

— 任德淳(忠北大교수)서울의 歷史政治地理書

62년 師大卒, 講壇에서 地理教育을 강의하고 있는 著者가 首都서울을 역사, 정치, 지리적으로 발전과정을 기술한 著書.

6백년전 서울을 朝鮮首都로 정한 정치, 지리적 배경과 현재까지 정치기능 및 지리적 공간면에서 성장 변화해 온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특히 정치지리학적인 면에서 현재의 서울이 어떤 성격의, 유형의 수도인가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首都서울을 時系的으로 살피는데 적절한 책이다.〈지식산업사刊 · 값5천원〉

趣味활동

醫劇會

30여년간 先·後輩 共演전통 이뤄
重鎭醫療人 주축돼 30회 기록세워

醫劇會는 演劇을 사랑하는 醫科大學출신 先後輩동문들이 연극무대에서 學窓시절의 꿈을 되살리면서 友誼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한 아마추어 演劇人들의 모임이다.

올해로 31년의 연륜을 자랑하는 醫劇會는 醫療界에 종사하는 연극반 출신 선배들과 醫大재학생들로 2백여 회원이 나뉜다. 지난해 12월엔 무대활동30년을 기념, 醫大강당에서 原子彈의 아버지로 버트 오펜하이머박사의 청문회 기록극인 「核博士님의 배반」을 공연했다. 이들 회원들은 배역은 물론이고 기획, 연출, 무대미술, 영상, 음향, 분장에 이르기까지 출연해서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미 30회 이상의 공연기록을 갖고 있는 醫大연극부와는 달리 醫劇會는 그동안 4회의 공연으로 初老에 접어든 초창기 회원들이 구성멤버로 주도하고 있는데 60~73년 입학생들로 각 병원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진의료인들이다.

지난 62년 교내 서클로 출발한 醫大연극반이 母胎가 돼 출발한 醫劇會는 그동안 봄, 가을 두차례에 걸쳐 작품을 무대에 올려놓고 있으나 거의 연극반 재학생들에 의해 公演돼 왔고 이들은 10년에 한번씩 무대에 서오고 있을 뿐이나 후배들의 연극공연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극부 창립멤버이자 醫劇會 대표로 지난 연말 공연의 총지휘자였던 盧浚亮교수(66년卒·醫大흉부외과과장)는 지난 30주년 연극공연때는 『2개월 전부터 연습을 시작했는데 서로가 시간내기가 어려워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들었으며 도망가는 사람을 술사주며 설득해야 할 정도로 힘겨웠다』면서 그래도 자기성취의 흐뭇한 기분을 만끽했다고 말한다.

醫大 연극부는 32년전인 62년 盧浚亮교수를 비롯 李 恒(66년卒·母校교수) 睦積銀(66년卒·蔚山大 산부인과과장) 文炯男(67년卒·서울中央病院 소아과과장)동문등 20여명을 주축으로 결성돼 이듬해엔 유진 오닐 原作의 「오 荒野여!」를 국립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연했다. 73년엔 연극부 창립회원들이 중심이 돼 「뮤지컬 맥베스」를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醫劇會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두가지가 있다.

大學演劇 부흥이라는 기치에 걸맞게 「오 황야여」와 「줄리」(스트린드베르히원작)에 이어 「核박사님의 배반」등 10여작품을 국내 初演했던 일과 등사기로 긁어내고 校正과 나서로 엮어진 고색창연한 연극부 초창기의 台本을 큰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다.

지난해 30주년기념 연극에서 기획을 맡았던 李鎭學(72년卒·서울大병원 眼科)교수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연습과 공연에 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公演을 마치고 나면 뿌듯함과 학창시절의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면서 『아마추어들의 연극인만큼 기성연극인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主題가 진지하고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가급적 많이 취급하려 한다』고 말한다.

李교수는 비록 나이차이가 많은 선후배간이지만 연극공연시엔 配役에 충실, 선배들도 후배들의 지시(?)에 불평없이 따른다고 말하면서 웃는다.

이들 「醫劇會」회원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어 자주 만날 기회가 없으나 재학생들이 봄, 가을 두차례에 걸쳐 공연할때면 만사를 제폐하고 참석하여 친목과 우의를 나누게 된다고 한다.

「醫劇會」에서는 기금으로 지난 91년엔 의대 강당에 조명시설을 1천만원 들여 설치해 주고 후배들의 常設公演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등 여유가 있는 직업인들이어서인지 쓰임새도 큰 편이다.

▲「핵박사님의 배반」의 한장면.

尙美會

齒醫術과 美術의 調和, 20여년 脈이어

美術과 醫術人은 調和를 이룰 수 없는 判異한 세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상식으로 돼있는 사회풍토에서 그림을 그려 아마추어 境地를 넘어선 그룹이 있다.

母校 齒大출신들로 구성된 「尙美會」가 바로 그것이다. 齒大의 서클인 尙美會는 창립 21년이 넘고 있다. 이 모임의 발족은 73년 鄭弼薰(79년卒) 尹奉潤(79년卒) 郭明勳(79년卒)동문등 당시 예과 1년생들이 중심이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現會長인 尹奉潤(음곡치과원장)동문이 이끌고 있는 상미회의 회원은 77명이나 된다.

지난해 8월 16일 창립 20주년을 기념, 세종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32명의 회원이 55점의 작품을 전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 展示會에서 李勝雨(61년卒·齒大교수)고문의 「出帆春江」과 崔用默(43년卒·齒醫師), 車惠榮(68년卒·齒醫師)동문의 작품이 찬사를 받았고 尹奉潤회장의 「기타치는 사람」과 金乙植(80년卒·齒醫師)동문의 그림들은 프로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尙美會의 그림을 지도해온 母校 美大 李鍾祥교수는 이들 작품이 이미 아마추어수준을 넘어 자기세계를 구축하려는 진지한 창작세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한다.

尙美會는 지금까지 21期를 배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6회의 展示會를 열어 會員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아 오고 있다. 25주년, 30주년등 뜻있는 해에는 尙美會 가족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여 많은 치과의사들이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친목과 단합을 위한 별도의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을 만큼 가족분위기를 이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딱딱하기 쉬운 齒科醫로서의 생활속에서 창작욕구와 藝術魂을 키워가고 있는 尙美會회원들은 理性的인 醫療人 생활에서도 感性의 세계를 조화롭게 이끌어가고 있다.

母校 소식

半導體共同研究所 研究論文발표전시

半導體共同研究所(소장 黃琪雄)는 지난 11일 93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과제 논문발표회 및 전시회를 가졌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된 이날 행사에서는 5개분야의 논문발표와 MPC프로젝트외 10과제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날 발표된 교수 85명의 반도체분야 연구결과 논문은 실리콘분야, IC설계 및 설계환경구축, Ⅲ-Ⅴ素子기술, 新素材 및 新素子開發, 소규모과제분야에서 總47과제이다.

研究公園 조성추진

국제백신研등 각종연구소 유치

효율적 産學협동위해 2만평 규모로

母校에서 校內 2만여평 부지에 産學협동을 위한 「研究公園」조성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母校는 또한 정부관계기관을 통해 국제기구의 尖端研究所인 遺傳국제백신연구소를 호암교수회관과 學部寄宿舍사이에 건립할 연구공원내에 유치키로 하고 유치사업신청서를 지난 15일 유엔개발계획(UNDP)에 제출했다.

母校의 관계자에 따르면 「學內敷地를 과감히 개방, 기업들로부터 기부채납형식으로 기금을 모아 연구공원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母校에서는 이를 위해 기획실 산하에 「研究公園 推進企劃班(班長 金東建기획실장)과 諮問교수팀을 구성, 빠르면 95년부터 團地조성에 착수, 98년께 完工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연구공원내에 연건평 2만평규모의 半導體, 情報通信, 新素材, 유전공학관련 각종 연구소를 건립, 기부채납한 대기업에 貸與해주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의 「인큐베이터研究所」를 세워 人力과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母校에서는 연구공원부근에 獨身者 旣婚者등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여평 규모의 大學院기숙사 8개동도 신축키로 했다.

工大 학부제 확대 추진

화공-재료-기계 3부문 신설

工大(학장 鮮于仲皓)는 지난 22일 학과장회의에서 기존 전기·전자·제어계측공학군 외에 3개 학부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화공학부(공업화학과·화학공학과·섬유고분자공학과) 재료공학부(무기재료공학과·금속공학과) 기계항공우주공학부(기계공학과·기계설계학과·항공우주공학과)로 95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을 선발키로 했다.

한편 건축학과·토목공학과·자원공학과·조선해양공학과등 4개학과를 하나의 학부로 묶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自然界 本考査 영어 추가

인문계 「사회-과학」 가중치

95학년도 모교 입시에서 자연계 본고사과목에 영어가 추가되고 인문계는 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영역의 「사회-과학」부분에 가중치가 주어진다.

지난 18일 학장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95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정 발표했는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고교내신 40%, 수학능력시험 20%, 본고사 40%로 94학년도와 같다.

이에따라 자연계열의 필수과목은 국어 수학Ⅱ에 영어가 추가되며 선택과목은 물리·화학, 물리·생물, 물리·지구과학, 화학·생물, 화학·지구과학등 5개 유형에서 1개유형을 선택하도록 해 전체적으로는 5개과목으로 늘어났다.

사범대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내신 40% 수능 20% 본고사 30% 및 적성·인성검사와 면접 각각 5%등으로 선발키로 했다.

예·체능계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과 함께 본고사 시험일자, 시험과목간 배점비율, 수능시험의 가중치부여등 세부사항은 이달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신임 師範·看護大학장

黃禎奎·洪麗信교수 취임

신임 師範大學長과 看護大學長에 黃禎奎교수와 洪麗信교수가 각각 2월24일, 3월1일字로 취임했다.

신임 黃학장은 57년 사범대 교육행정학과를 졸업, 고려대 교수를 거쳐 84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한국교총연구위원회 위원장, KBS교육방송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맡고있다.

▲黃禎奎 학장

▲洪麗信 학장

신임 洪학장은 54년 간호학교를 거쳐 61년 美國 미네소타大 간호교육과를 졸업, 콜롬비아大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64년 모교에 부임한 후 舍監, 간호학과장을 지낸바 있다.

音大콩쿠르 개최

일부特技者 선발

音大(학장 徐友錫)는 「서울음대 콩쿠르」를 개최, 입상자중 일부를 95학년도 입시부터 특기자로 선발모집키로 했다.

지난 21일 음대가 마련한 「예능특기자 선발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콩쿠르를 개최, 성악 국악 기악등 3개부문 12개 분야에서 60명의 입상자를 선정, 일정점수 이상의 수능성적을 받은 입상자 10~20명을 음악특기자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제1회 서울음대 콩쿠르는 오는 5월 23일부터 6일간 열릴 예정이다.

碩座教授 基金 5억 약정

朝興銀서 社會환원 차원으로

조흥은행(행장 李鍾衍·56년 商大卒)은 최근 모교 金鍾云총장에게 「朝興銀行碩座教授」기금으로 5억원을 내기로 약정하고 98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원씩 출연키로 했다.

석좌교수제는 産學協同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선임해 연구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조흥은행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大教석좌교수기금

5억分割出捐키로

대교(社長 강영중)은 최근 「대교석좌교수」기금으로 5억원을 출연키로 약정하고 1차분으로 1억원을 출연했다.

이에따라 대교는 94년에 2억원, 95년·96년·97년에 각각 1억원씩 분할 출연하게 되며 모교는 이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국내외의 우수한 학자를 석좌교수로 초빙할 예정이다.

油公, 化工科에 20억 지원약속

油公(社長 조규향)은 지난 4일 모교 공대 대회의실에서 화학공학과와 산학협동장기연장계획을 체결, 오는 2004년까지 10년동안 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油公은 84년부터 현재까지 화공과내에 개설된 유공연구실에 11억 4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ROTC 승급·입단

모교 學生軍士教育團(단장 河容文)은 지난 12일 학군단 연병장에서 학군사관후보생(ROTC) 33기 승급식 및 34기 입단식을 가졌다.

신입생위한 企劃講演 열려

趙東一·李海瓚동문 강사로

總學生會 學術局이 주최한 「신입생을 위한 기획강연」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열렸다.

첫째날은 「우리 학문의 길」을 주제로 趙東一교수(62년 文理大卒·국문학)가, 둘째날은 「開港 1백년, 한국사회 국제화의 현주소」를 주제로 李海瓚의원(86년 社會大卒·민주당)이, 마지막 날엔 「농민전쟁 1백년, 한국농업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朴泳範연구원(90년 農大卒·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이 강연했다.

이번 행사에는 하루 평균 2백명의 학생들이 참석, 연사들의 강연이 끝난 뒤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둘째날 강연은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이자리에서 李의원은 「지금의 국제화는 개별 민족의 정체성과 의식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시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정성이
모교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대학발전기금」 조성 캠페인은 여러분의 호응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할 즈음 한 시인은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고 노래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여러분의 참여로 커 갑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모교를 영원한 그리움의 고향으로
그리고 크나큰 긍지의 원천으로 되게 할 것입니다.

「대학발전기금」 참여안내

■ 참여자의 범위
동문, 학부모, 교직원
재학생, 기업체 등

■ 출연의 형태
현금, 주식,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등)

■ 출연방법
· GIRO입금 : 7514340
· 무통장입금
농협기업자유예금
계좌:079-17-000136
(명의:서울대발전기금)

■ 기금의 용도
장학, 연구기자재
국제학술교류, 도서
학술연구, 석좌교수
대학문화·체육
각종의확시설물

■ 세제상의 혜택
출연금액은 세제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단위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 연구소

* 연락처: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우편번호:151-742)
전화:880-5026~7, Fax:872-4149
* 기금의 용도 및 지원단위는 출연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